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600호 HYUNBULNEWS.COM 2026년 11월 4일(음력 9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천년 향한 대장경 불사 첫발 법보종찰 해인사는 10월 29일 '대장경 판각 고불식'을 봉행하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대장경 판각의 시작을 알렸다. 대장경 판각은 800여 년 전 몽골의 침략 속에서 국난 극복과 전쟁 종식을 발원하며 조성한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계승, 전쟁과 기후위기 등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넘어 생명 존중과 평화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서원이 담겼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판각학교 교육생들의 전통 판각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해인사

800년 전 호국 서원, 다시 새긴다

해인사, 대장경 판각 고불식 봉행
만일기도 입재, 인류 평화 발원
전통 판각 기술 보존 · 후대 전승
"원형 재현 넘어 수행 정신 계승"

여수령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인사 대장경 판각 고불식.

800여 년 전 선조들이 몽골의 침략 속에서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염원하며 새긴 팔만대장경의 호국 정신을 잇고 인류 평화를 발원하는 새로운 대장경 판각 불사가 시작된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10월 29일 법계탑 마당 특설무대에서 '대장경 판각 고불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와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판각학교 교육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원본 재현 아닌 호국 정신 계승"

이번 불사는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에 걸쳐 조성된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데 의미가 있다. 당시 고려인들이 국난 극복과 전쟁 종식을 기원하며 대장경을 새겼다면, 오늘날에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전쟁과 핵 위협,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평화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서원을 담았다.

혜일 스님은 "판각 불사는 팔만대장경의 원본을 대체하거나 그 형태를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이 남긴 지혜와 정성, 수행의 정신을 오늘날에 계승하는 새로운 발원"이라며 "전통 판각 기술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고불식에 앞서 법보전 앞마당에서는 불사의 원만한 성취를 기원하는 만일기도 입재식이 봉행됐다. 이어 스님과 판각학교 강사진, 교육생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 판각 시연이 진행됐다.

"청정 불성 드러내는 수행 과정"

방장 대원 스님은 법어에서 "팔만대장경은 전쟁의 참화를 평화의 연꽃으로 바꾸어 낸 간절한 비원(悲願)의 결정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이 응축된 인류의 살아있는 숨결"이라고 짚었다. 이어 "오늘 입재하는 만일기도와 판각 불사는 우리의 탐진치 삼독심을 깎아내고 본래 청정한 불성을 드러내는 지난한 수행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함께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경 · 종교 넘어 세계로 회향"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대장경 판각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누리에 전하는 '시대의 서원'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진우 스님은 "오늘 새겨지는 한 글자 한 획은 전통의 맥을 잇는 장인의 숨결이자, 디지털과 다국어의 그릇에 담겨 국경과 종교의 벽을 넘어 온 세계로 회향될 무진장(無盡藏)의 법음이 될 것"이라고 기원했다. 이어 "이 청정한 발원이 억겁의 어둠을 밝히는 마니주(摩尼珠)가 되어 온 인류의 마음에 평화와 안락으로 깃들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말했다.

참석 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한 자 한 자 새겨 나가는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며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고 그 공덕을 법계의 일체중생에게 회향하겠다"고 서원했다.

해인사는 전통 판각 기술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2024년 장경도감 산하에 판각학교를 설립했다. 현재까지 스님과 재가자 등 670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현재 경판의 재료가 될 나무 약 300톤을 확보해 제재와 건조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해인사 소유 10만여 평의 토지에 판각 기술을 전수하고 각수를 양성하는 '대장경 타운'도 조성할 계획이다.

조계종 내년 예산 1133억 편성

동결기조 · 집행부 공약 반영
일반회계 331억원…2.2% 증가
선명상 등 특별회계 801억원

조계종 총무원이 불기2571(2027)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을 1133억13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78억9100만원 늘어난 규모다. 교구본·말사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제38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인 지역불교 활성화와 종단 재정 안정화, 선거제도 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총무원 기획실은 10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예산에 따른 주요 종책기조와 내용을 설명했다.

기획실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예산은 331억7600만원으로, 올해보다 6억5000만원(2%) 늘었다. 중앙분담금은 0.8%(5000만원) 증액됐는데, 이는 신규 등록 사찰에 일정 분담금이 책정된 것으로 사실상 동결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세출 예산에서는 진우 스님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내건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 반영됐다.

특히 포교부는 올해 18억3500만원에서 25억7600만원으로 45.8% 대폭 증가하며 전법포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담아냈다. 교구본사와 종단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불교 활성화 사업에는 5억원을 신규 배정했으며, 포교 프로그램 개발에 3000만원, 나란다축제에 9000만원, 출가 장려 사업에 43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총무부는 각 사찰의 세무·노무 업무 부담을 덜고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 사업에도 5000만원을 배정했다. 내년 예정된 종정 스님 추대법회에는 2억원이 편성됐다.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밝힌 자비 실천 기조에 따라 사회부 예산도 자비나눔 실천에 2800만원, 시민사회 활동에 43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미래본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종단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가치이음 사업에 3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개관 20주년을 맞는 불교중앙박물관은 특별전 예산으로 2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 예산은 801억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비 93억원, 국민평안 대중화 사업 5억원, 선명상중앙본부 운영 지원 4억원, 열암곡 기반시설 조성 9억원,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지원 3억원 등이 반영되면서 올해보다 7억2410만원(9.9%) 늘었다.

예산안은 11월 12일 개원하는 제240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제19대 중앙종회 11월 12일 개원

오전 10시 조계사서 개원법회
전반기 의장단 · 상임분과위 구성

조계종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구로 향후 4년간 종단의 주요 현안 입법을 책임질 제19대 중앙종회가 11월 12일 개원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기관지를 통해 '제19대 중앙종회 개원식 및 제240회 중앙종회 정기회 소집'을 공고했다. 제38대 총무원장 취임 후 첫 정기회이자 제19대 중앙종회의 첫 의정활동으로, 회기는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이다.

중앙종회는 정기회에 앞서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이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제240회 중앙종회 정기회를 연다.

정기회에서는 임시의장을 선출한 뒤 제19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다.

이어 각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분과위원회를 배정한다. 이후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등 종단 주요 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10·27법난 진상규명·명예회복 발원”

조계종, ‘46주년 추념문화제’ 봉행
법난 희생자 49명 극락왕생 발원
“역사 반복 막기 위해 기억·성찰”

이현희 기자 hyeonhae@hyunbul.com



조계종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10 · 27법난 제46주년 추념문화제’를 봉행했다.

1980년 10월 27일 국가권력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저지른 폭력의 역사를 기억하고, 법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법석이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10·27법난 제46주년 추념문화제’를 봉행했다. 추념문화제는 46년 전 자행된 불교계에 대한 국가폭력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되새기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석에 앞서 법난 희생자 49명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위령재가 거행됐다. 이어 총무원 총무부장 정문 스님, 10·27법난희생자모임 회장 중화 스님, 보문사 부주지 박진 스님,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차례로 희생자 영단에 헌화하며 추모를 이어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정문 스님이 대독한 추념사에서 “국가권력의 부당한 폭거에 맞서 불교의 자존을 지키다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고 입적하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며 추모했다.

이어 스님은 “많은 피해자들이 한을 품은 채 세연을 다했고, 살아 있는 분들 또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이 아픔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야 할 역사”라고 전했다. 그날의 사태가 사회 전체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는 것이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중요성도 짚었다. 스님은 정부에 “피해자 마음에 남은 상처를 위무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며 “완전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27법난피해자모임 회장 중하 스님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강제로 연행된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우리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며 “수행환경 침해와 연행 과정에서 자행된 고초는 인권 유린뿐 아니라, 수행자로서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이 비극을 과거사로 묻어둘 수 없고, 정부는 형식적인 조치를 넘어 진상규명 등 적극적인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며 “불교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이 사태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봉은사 도량에 건립되는 ‘10·27법난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잇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전해졌다.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은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되새긴다”며 “인권과 종교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념관을 성찰과 화합의 공간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봉은국악합주단과 가수 임지훈이 추념 공연을 선보였으며, 10·27법난 관련 작품도 전시돼 참석대중의 추모와 연대를 이끌었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당시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권력으로 전국 사찰·암자 5731곳이 수색당하고, 스님과 사찰 관련 종사자 1929명이 불법 연행된 사태로, 법난 피해 인정자는 96명이다.

진우 스님 “비구니 스님 역할 확대 노력”

10월 28일, 비구니 종회의원 예방
“승려복지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 내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10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관 스님을 비롯한 제19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예방을 받고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3선 종회의원인 정관 스님은 “복지 기관에서 관장직을 오래 맡으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성을 갖춘 스님들을 많이 봐왔다”며 “종단의 안정적인 복지 환경 구축에 힘을 보태기 위해 비구니 스님들도 복지 관련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종단 직영사찰 세종 광제사 주지에 형진 스님을 임명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비구니 스님 참종권 강화에 힘쓰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진우 스님은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비구니 스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겠다”며 “제38대 집행부 운영기조인 ‘공의·공감·공심’ 가치에 함께하며 종단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데 원력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제19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정관·진상·수경·법해·설해·은광·주석·금해·혜능·서원 스님이다.

이현희 기자

네팔 피해 복구에 불교계 지원 이어져

지구촌공생회 6700여 만원
빛고을 나눔나무 1346만원
대불련 총동문회 1300만원


10월 27일 열린 지구촌공생회의 기금 전달식 모습.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불교계의 자비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NGO 지구촌공생회(이사장 회일 스님)는 10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긴급모금’ 6744만5000원을 전달했다.

이사장 회일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사무총장 덕림 스님은 “네팔은 우리와 인연이 깊은 나라인데 큰 피해를 입어 이번 모연에도 정성을 기울였다”며 “네팔 현지에 우리 지부가 있는 만큼 종단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평소에도 쉽지 않은 해외구호 사업에 힘써줘 고맙다”며 “이 같은 자비행이 본보기가 될 것이며, 큰 공덕을 짓는 일”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광주불교연합회 (사)빛고을나눔나무 이사장 소운 스님과 총무국장 해청 스님도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1346만원을 전달했다.

소운 스님은 “네팔에 여러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광주불교연합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온 인연이 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에 큰 피해를 입어 십시일반 모연했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 고향 나라이기에 더욱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여러 곳에서 다각도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최대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임문우)도 이날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 1300만원을 기탁했다. 기금은 네팔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고자 60여 명의 동문 회원들이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모연한 금액이다.

박지운 기자

불교신문사장 도심·호법부장 서리 지묵 스님 등 임명

진우 스님, 10월 28일 임명장 수여
총무원 사서실장에 유정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에 일규 스님


도심 스님


지묵 스님


유정 스님


일규 스님

불교신문사장과 호법부장 서리를 비롯한 조계종 총무원 및 산하기관 교역직 종무원, 직영사찰과 직할교구 사찰 주지 인사가 단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신문사장에 도심 스님, 총무원 호법부장 서리에 지묵 스님, 사서실장에 유정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에 일규 스님, 호법부 상임감찰에 정견 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종단 직영사찰인 세종 광제사 주지(사찰관리인) 겸 전통문화체험관장에 형진 스님, 직할교구 서울 문수사 주지에 선묵 스님을 임명했다.

진우 스님은 “인사는 늘 고심이 많이 된다.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인재를 등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훌륭하게 소임을 볼 것으로 기대하며, 꼭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불교신문사장에 임명된 도심 스님에게는 “불교신문의 여러 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알고 있고, 불교신문과 도선사의 인연도 깊다”며 “불교신문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호법부장 서리로 임명된 지묵 스님에게는 “호법부장은 진작 임명하려 했지만,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종 결재권이 없는 서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임명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사서실장 유정 스님에 대해서는 그간 교육부장으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평가했으며,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규 스님에게는 “미디어홍보실장으로 일하면서 선명상 분야에 교감해 왔고, 관련 내용을 깊이 알고 있어 협업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제사 주지 겸 전통문화체험관장에 비구니 형진 스님을 임명한 배경도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그동안 비구 스님들이 사찰관리인을 맡아왔지만, 세종시 공무원들과의 협의 문제와 거점 사찰로서 체험관 운영 등 세밀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주변의 추천도 많았고,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라는 측면도 있다. 맡은 역할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도심 스님은 “임명해 주신 데 누가 되지 않고 종단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임명된 스님들도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받들어 대중화합을 이끌고, 종단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김내영 기자

세상을 향기롭게 활성화를 위한 창립 15주년 기념,
기금마련 하루찻집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금정산의 바람도 가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토록 향기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사)세상을 향기롭게」에서는
세향기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
해외지원사업의 마중물이 될 하루찻집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걸음 하시어
마음을 모아 주신다면
한량없는 기쁨이겠습니다.

불기 2570(2026) 10월 아름다운 날
(사)세상을 향기롭게 이사장 여산 정여 합장

사단법인 세상을향기롭게 FRAGRANT WORLD FOUNDATION



하루찻집 일정 일시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장소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2층

문의 정병철 010.6561.5461
이동성 010.9903.1810
김윤희 010.3564.3725
이수인 010.3552.6535

※ 당일 하루찻집 운영 후원기금은 전액 “세상을 향기롭게” 해외 구호 및 교육지원사업 기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2026년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정기총회 안내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동문 스님들의 법체강건과 불사 원만성취를 발원합니다.
2026년도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26년 11월 13일 (금) 오후 5시
장 소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정각원
(총회 종료 후 저녁공양 진행)
주요 안건 및 행사 일정
• 자랑스러운 동문인상 시상
• 석림동문회 장학금 수여
• 제20대 석림동문회장 추대의 건
• 재무보고
• 기타안건

석림동문회 회장 돈관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온 세상은 한가족”

10월 24일, 경내서 회향식 봉행
종교 · 민족 넘어 화합 상생 발원
진우 스님 “중생 구제 실천의 장”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법문도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진관사는 10월 24일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평화 행진 모습.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종교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모든 존재의 화합·상생을 위한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9월 4일부터 49일간 봉행된 국행수륙재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올해에는 종교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네팔 대홍수 피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과 전쟁 종식 등 전 세계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발원했다.

진관사는 10월 24일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식을 봉행했다. ‘온 세상은 한가족-화합과 세계평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행수륙재는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의 모습을 넘어 모든 존재가 깊이 연결된 공동체임을 되새기고, 평안한 세상을 염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향식에는 사부대중을 비롯해 어린이와 청년, 외국인, 유학생, 타종교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7대 종교와 각계각층이 종교와 국경의 벽을 넘은 어우러짐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석자들은 사찰에서 제공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하며 기념식의 시작을 알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오늘 우리가 봉행하는 수륙재는 단순히 오랜 역사를 기억하는 의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을 달래는 천도의 의미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폭력, 기후재난과 사회적 대립으로 신음하는 현실의 중생들을 구제하는 실천적 장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49일간 스님들의 법문과 범패 작법을 온 도량에 자비로움을 가득 채웠다”며 “모든 생명을 위한 큰 자비심으로 오랜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상생의 길을 밝혀온 진관사수륙재보존회와 수륙재학교의 전승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준 한국종교평화회의 회장은 평화선언문을 통해 “온 세상은 한가족”이라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할 때 인류는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선언문에서는 △생명존엄을 지키고 모든 존재 존중 △종교 간 화합과 상호 이해의 평화 △전쟁·폭력 종식된 평화가 깃드는 세상 △자비·사랑·나눔 연대로 평화 실천 등을 발원했다. 이날 법석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했다.

사부대중은 조계종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의 지도로 명상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금강 스님의 명종 소리에 맞춰 눈을 감고 평화와 자비를 기원했다.

자비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진관사는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에게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기금 5000만원을, 진관사 어린이·청소년·청년 법회는 1309만7420원을 각각 기탁했다. 진관사 신도회는 은평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쌀 2000kg을 전달했다.

이어 ‘평화 행진’을 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일주문 앞에 도착한 후 진관사 스님들은 국행수륙재 시련 의식을 이어갔다. 시련과 대령, 관욕 의식을 통해 영가를 도량으로 모신 뒤 신중작법과 괘불이운, 영산작법 등의 의례가 차례로 봉행됐다.

오후에는 올해 국행수륙재의 마지막 법문을 맡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석에 올랐다. 성파 스님은 ‘무량무변 세계 중에 극락세계가 제일이라’를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스님은 “갈등과 시기·질투가 깊어 서로를 미워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모두 한가족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어우러져 즐기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만 명이라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적과 성별, 지위가 서로 다르면 한마음으로 무언가를 함께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행사를 통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었다”며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 진관사에 고맙다”고 말했다.

“불조 혜명 바르게 잇겠습니다”

10월 29일, 조계사 대웅전서
종사 47명 · 명덕 42명 총 89명
대덕 70명 · 혜덕 58명도 품수


21조 가사를 정대하고 있는 스님들.

조계종 종사·명덕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이 불조 혜명을 바르게 이어 화합과 수행으로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법산 스님)는 10월 2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2570(2026년) 종사·명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계를 받은 스님은 종사 47명, 명덕 42명 등 총 89명이다. 종사·명덕은 승랍 30년 이상인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법계다.

이날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높은 지위와 무거운 책임을 진 만큼 자신의 수행과 원력을 냉철하게 점검하길 당부했다. 스님은 “출가할 때의 간절한 서원대로 위로는 생사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하고 아래로는 대자비심을 발해 고통받고 상처 입은 세간의 모든 중생들을 교화·치유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정문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종사·명덕 법계는 단순한 법위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후학을 바르게 이끌고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이루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와 사회 속에 펼쳐 나가야 하는 지도의 자리”라고 말했다.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과 법계위원 스님들은 봉은사 주지 석산 스님과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 교수사 상현 스님에게 법계증을, 중앙종회의원 석중 스님과 고관사 주지 관우 스님에게 21조 가사를 대표로 수여했다.

종사·명덕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은 불국사 총무국장 정수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에서 “인천의 사표로서 위의를 갖추고 중생구제 원력에 더욱 힘쓰겠다”고 서원했다.

같은 날 법계위원회는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대덕 70명, 혜덕 58명 등 총 128명 스님을 대상으로 법계 품서식도 봉행했다.

앞서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수진 스님)는 10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기2070(2026)년 2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시상식’을 열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구산(비구)·자헌(비구니) 스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박지운 기자

중국불교협회, 주요 종단서 협력 다짐

종성 스님 단장으로 대표단 스님들
조계종·천태종·진각종·태고종 방문


중국불교협회 대표단이 한국불교 주요 종단을 잇달아 방문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환담 후 단체사진 촬영 모습.

10월 20~21일 경주 불국사 일대에서 열린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 참석한 중국불교협회 대표단이 한국불교 주요 종단을 잇달아 방문해 한중 불교계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확대를 다짐했다.

중국불교협회 상임부회장 종성 스님 등 대표단은 10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했다.

진우 스님은 “한국과 중국 불교는 형제나 다름없이 가깝다. 종성 스님과는 한국 스님들보다 더 자주 만날 정도로 친근한 사이가 됐다”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 양국 불교의 우호와 교류를 이어가고, 불교계의 연대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성 스님은 “자장 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 한국불교의 뿌리를 단단하게 했듯, 한국과 중국 불교는 1000년 넘게 교류하며 인연을 이어왔다”며 “불법의 힘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양국 불교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고 화답했다.

중국불교협회 대표단은 같은 날 단양 구인사와 서울 관문사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관문사 대불보전에서 약식 예불을 올리고 옥불보전을 참배한 뒤 공양을 겸한 차담을 나눴다. 이어 관문사 법화대보탑을 참배했다.

천태종 총무부원장 월도 스님은 과거 조박초 전 중국불교협회 회장이 천태종 스님들을 중국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것이 기초가 돼 한중일 3국의 황금유대가 됐고 변하지 않는 금처럼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시간도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역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중국불교협회 대표단은 이어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진각종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종조사리탑과 탑주심인당을 참배한다.

종성 스님은 “진각종이 한중일 삼국불교의 ‘황금유대’ 정신을 지지해 왔다”면서 “세계불교포럼을 비롯한 중국불교협회가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동참하는 등 여러 차례 교류를 통해 진정한 친구가 됐다”고 앞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월 24일에는 양주 청련사를 찾아 태고종과 교류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한 뿌리에서 이어져 온 인연이 깊으니 같은 원력과 수행으로 함께 번영하자”며 “앞으로도 태고종은 중국불교와 오랜 역사를 이어가며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성 스님은 “태고종과의 교류를 심화해 양국 불교계의 우호를 상징하는 ‘황금유대’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임은호 · 김내영 기자



조계사, 승보 공양 올리며 “자비실천 · 화합 발원”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 지역법회가 10월 24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창립 15주년을 맞아 승보공양법회 ‘지심귀명례’를 봉행하고 자비실천과 모든 이의 화합과 행복을 발원했다. 승보공양에서는 32개 지역법회 소속 불자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주지 담화 스님과 부주지 탄보 스님 등 조계사 사중 스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의(依)·식(食)·주(住)·약(藥)의 사사공양(四事供養)을 올렸다. 김내영 기자





JustBe장학회 출범…“승가 내일 함께 준비”

10월 24일, 홍대선원서 출범식
유학·출가 첫걸음·의료 등 지원
백천재단, 10년 3억원 출연 약정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 2000만원


JustBe 승가장학회가 10월 24일 출범하며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승가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출가의 첫걸음부터 교육과 수행, 국제적 경험을 쌓는 과정까지 지원하는 ‘JustBe 승가장학회’가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승가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JustBe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은 10월 24일 서울 홍대선원 5층 선불장에서 ‘JustBe 승가장학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승가장학회 출범은 장학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사람을 키우는 일을 사부대중 공동의 원력으로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출가를 결심한 순간부터 수행자로 성장하는 과정, 배움과 치유를 통해 역량을 갖추고 다시 사회와 불교에 회향하기까지 필요한 기반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것.

준한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랫동안 스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해 한국 불교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고 싶다는 꿈을 품어 왔다”며 “홍대선원을 만들고 히말라야에 첫 한국 법당을 세우고, 뉴욕 조계사를 담당하는 등 지난 4년 간 여러 불사에 힘을 쏟았는데, 오늘 이 인재 불사가 가장 큰 불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준한 스님이 장학회 설립을 구상한 것은 20여 년 전 부처님을 만나 수행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언젠가 출가해 공부를 마친 뒤에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배들에게 열어주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홍대선원을 운영하며 그 원력은 더욱 구체적인 과제가 됐다.

장학회가 마련한 지원 분야는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글로벌 인재 양성 지원’으로 백천문화재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간 1~2명에게 1인당 1만~2만달러, 약 1500만~3000만원 규모를 지원한다. 두 번째는 ‘출가 첫걸음 지원’으로 가사와 장삼 등 출가에 필요한 물품과 초기 정착에 드는 비용 약 300만원을 지원해 수행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세 번째는 학비와 어학원비, 의료보험료와 치료비,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교육·수행 지원’이다. 네 번째는 청년 재가불자와 스태프의 성장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홍대선원에서 수행 중인 스님과 행자도 소개됐다. 세대뿐 아니라 네팔, 뉴질랜드 등 출신 국가도 다양한 이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한 준한 스님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수행하고 미래의 불교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학회의 목표”라고 많은 응원을 당부했다.

JustBe 승가장학회 출범은 스님과 기업, 개인 후원자들의 동참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특히 백천문화재단은 준한 스님의 제안을 계기로 장학회 설립에 뜻을 모아 향후 10년간 3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조도성 백천문화재단 사무국장은 “해외 유학의 경우 학비가 비싸 기존 재단만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준한 스님의 제안을 듣고 함께하면 더 큰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JustBe 승가장학회가 한국 불교계의 큰 기둥으로 성장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도 준한 스님의 원력과 새로운 승가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를 격려하고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010-8008-2423

농협 301-0390-9845-31(대한불교조계종 홍대선원)

“치료 포기하는 아이 없도록 자비의 손길을”

2026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금
조계종복지재단, 10월 27일 개최
3000배 릴레이·안내 부스 운영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홍보대사 배아현 가수와 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왼쪽부터)이 자비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10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과 앞마당에서 ‘2026 제26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모금 행사’를 개최했다. 복지재단은 2001년부터 난치병 어린이 돕기 모금 행사를 열어 국내외 환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까지 누적 모금액은 약 35억원이며, 국내외 난치병 환아 1000여 명에게 치료비를 전달한 바 있다.

행사에 앞서 복지재단은 사전 신청자와 현장 참여자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하는 3000배 릴레이를 진행해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했다. 현장 모금과 사업 안내 부스도 운영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난치병 어린이와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비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모든 어린이가 질병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따뜻한 관심과 원력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따뜻한 정성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내일을 향한 희망이 되고 가족들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낼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며 “후원금은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와 수술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재단 라오스지부와 협력해 소아암 환아 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라오스국립아동병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모금에는 진우 스님과 BBS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정문 스님과 부실장 스님들, 도륜 스님, 복지재단 홍보대사인 배아현 가수가 현장 모금함에 성금을 보태며 자비나눔에 동참했다.

끝으로 동참자들은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유를 발원하는 108배를 함께하며 아이들의 쾌유와 가족들의 평안을 기원했다.

김내영 기자



이태원 참사 4주기…“진실 묻히지 않길”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10월 24일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일대에서 열린 ‘4대 종교 추모기도회’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위로를 건넸다. 이날 스님들은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져야 할 이들이 마땅한 책임을 지며, 유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현희 기자



“나는 화가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10월 25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15회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 ‘나는 화가다’를 개최했다. 조계사와 OCI미술관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형형색색 가을향연–제15회 조계사 국화엄축제’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 주제는 ‘국화가 피어있는 조계사’와 ‘부처님과 나’. 5~13세 어린이 700여 명은 국화와 사찰 풍경을 배경으로 각자의 상상력과 개성을 펼쳤다.

임은호 기자

불회사 비자나무숲, 산림보호구역 선정

산림청, 10월 23일 최종 지정
생물 다양성 보존 가치 높아


불회사 비자나무숲.

나주 불회사(주지 철인 스님) 비자나무숲이 산림청(청장 박은식)이 선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에 최종 지정됐다.

산림청은 10월 23일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우수 보호구역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국민 조사를 종합해 이뤄졌다. 산림청이 올해 처음 주관·시행한 사업으로, 우수한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회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대웅전 주변을 울창하게 감싸고 있는 비자나무숲이다. 유용식물자생지인 이곳에는 수령 300년 이상 된 비자나무 약 7000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동백나무와 야생 차나무도 자라 천년고찰의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지며 생태·경관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불회사 비자나무 숲은 오래전부터 사찰과 지역 대중이 함께 보호하고 가꾸어 온 역사적·문화적 자연유산으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지 철인 스님은 “이번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10선 지정을 통해 불회사의 사찰림이 국민들에게 좀 더 알려지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용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에는 불회사 외에도 점봉산 곰배령(강원 인제), 발왕산(강원 평창), 무릉계곡(강원 동해), 성인봉(경북 울릉), 소광리(경북 울진), 안면도(충남 태안), 천관산(전남 장흥), 죽림 해송림(전남 진도), 수악오름(제주 서귀포) 등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김내영 기자

경찰불교회 25주년…‘호법 신행의 등불’

10월 24일, 보은 법주사서 법회
코로나19 중단됐던 정기법회 재개



대한민국 경찰불교회(회장 박종섭, 이하 경찰불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경찰 불자로서의 신행을 다지고 국민의 안전과 평온을 지키는 호법의 서원을 세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법회를 지난해 재개한 데 이어 올해 기념대법회를 봉행하며 경찰 불자 간 화합과 신행 활성화에도 뜻을 모았다.

경찰불교회는 10월 24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서 ‘대한민국 경찰불교회 창립 25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경찰불교회는 2001년 김중겸 회장을 중심으로 창립해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약 5년간 법회가 중단됐다가 지난해 서울 봉은사에서 박종섭 제8대 회장의 취임법회를 계기로 활동을 재개했다. 이번 법회에서는 정기법회의 시작을 알리며 경찰 불자 간 신행과 화합을 다졌다.

경찰불교회 회원들은 전태환 충북지역 회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한 일념으로 근무하며, 국민에게 믿음직한 의지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스스로를 갈고 닦아 정의를 실현하며,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인연과 함께하며 힘들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신념과 의지를 북돋겠다”고 서원했다.

박지운 기자

해외불교계 AI 활용 사례 조명

조계종, 28일 ‘해외불교 세미나’
대만·미국·일본 등 현장 살펴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수행과 전법 등에 AI를 접목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불교계도 해외 사례를 검토해 바람직한 활용법과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진경 스님)는 10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6 해외불교세미나-미국·일본·대만 편’을 개최했다.

서울 불광산사 주지 혜호 스님은 전통 수행 가치를 지키면서 AI를 포교 현장에 도입한 긍정적 사례로 대만 불광산을 소개했다. 불광산은 방대한 불교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불교 용어 기준을 통일하고, 3만여 개의 표제어와 700만 자를 담은 〈불광대사전〉을 편찬했다.

반면 미국불교에서는 AI를 접목한 명상 프로그램이 정서·심리 치료에 치중되면서 수행적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명상의 수행적·관계적·윤리적 의미를 보존하고, 공동체와 전통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AI는 포교 확대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활용 과정에서 수행의 본질과 정보의 신뢰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이에 AI부디즘학술원장 보일 스님은 “AI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AI 책임 귀속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일본 불교계의 AI 로봇 도입 사례를 예로 들며 AI를 깨달은 존재나 제도적 스님으로 공인하지 않고 불법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AI를 설계하고 통제하며 그 활용에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여전히 인간이어야 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때문에 “AI 활용이 불교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책임 구조 안에서 재평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교데이터관리위원회 등을 신설해 AI 윤리 규범을 정립할 토대와 책임 귀속 구조를 만드는 절차를 밟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현희 기자

더프라미스, 청송 산불 이재민 맞춤 지원

시설 보수 등 40가구에 생활 지원
소상공인 58가구, 물품 직접 골라



지난해 3월 발생한 산불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송 이재민을 위한 나눔이 이어졌다.

불교계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청송시니어클럽 사례관리지원단과 함께 청송군 이재민에게 생활안정 지원 및 생계복구 지원을 진행했다”고 10월 23일 밝혔다.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산불 피해를 본 416가구의 전수 조사와 사례선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0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34가구에는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청송사랑화폐를 지급하고, 그중 3가구에는 인덕션과 냉장고, 보행보조기 등 생활물품도 지원했다.

생계복구 지원은 재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업 복귀를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식당 운영부터 도소매업, 건설업, 숙박업 등 소상공인 58가구다. 일괄 지급 대신 각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고르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숙박업 종사자에게는 수건과 이불 세트, 식당에는 주방용품, 도소매업자에게는 포장용 박스, 건설업자에게는 측량 장비 등을 전달했다.

건강 문제로 영업 재개가 어려운 초고령 22가구에도 즉석식품, 위생용품, 종량제 봉투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현희 기자

산복도로에 희망의 등불 밝히다

법화종, 25일 '법화마음 등불'
성림 · 현묵 스님 '토크콘서트'
제8회 락서암 장학금 수여식

이도경 부산지사장



법화종 총무부장 현묵 스님이 '가족과 나, 내가 소중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마음 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관효 스님)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주민들과 마음을 나눴다.

법화종은 10월 25일 부산 락서암에서 '산복도로에서 만나는 법화마음의 등불'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장학금 수여식과 마음행복 토크콘서트, 어울림 공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락서암 주지 수월 스님은 환영사에서 "해마다 장학금을 전하며 품었던 저의 바람은 젊은 인연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을 아끼고 응원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것이었다"며 "오늘은 바쁜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대회사에서 "오랜 세월 장학금과 나눔으로 이웃을 보살펴 오신 락서암 주지 수월 스님과 신도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이어 "아직 제 길을 찾지 못해 망설이는 청소년도, 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마음이 지친 이웃도 모두 깊이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분들이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그 곁을 지켜주는 일, 그것이 우리 법화종이 실천하고자 하는 인재불사의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장 성림 스님은 "작은 도전에도 박수를 보내고, 형편이 어려워 배움과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어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는 "배려하는 마음이 앞서면 나와 가정과 이웃, 사회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고 축하를 전했다.

'제8회 락서암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대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 고등학생 10명에게 각 50만원, 중학생 2명에게 각 30만원 등 총 22명에게 15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락서암은 2019년부터 매해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다.

김도훈 학생(동아대 전자공학과)은 장학생 대표로 감사 인사를 하며 "성실히 배우고 노력해 꿈을 이루고, 훗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마음행복 토크콘서트'에서는 성림 스님과 현묵 스님이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했다. 성림 스님은 '습관이 진정한 나를 만든다'를 주제로 좋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휴대전화와 짧은 영상 콘텐츠에 시간을 빼앗기는 일상을 예로 들며 마음먹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불을 개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마음먹은 일을 곧바로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자신을 변화시키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현묵 스님은 '가족과 나, 내가 소중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아버지 운경 스님과의 일화를 들려주며 가족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스님은 "평생 나와 가장 오래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며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해 주고,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어울림 공연에서는 단공 스님(동선사 주지)의 대금 연주, 라쿤 어린이 댄스팀의 댄스 공연, 세미의 전자바이올린 연주, 장은주의 트로트 공연 등이 선보였고 참석자들이 함께 연꽃등을 밝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생명존중이 평화의 출발점"

22일 간의 'DMZ 종교인 순례'
장적 스님 "상생의 길 열어야"



"비무장지대(DMZ) 순례는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잃은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불교·원불교·개신교·천주교·천도교 5대 종교인이 참여한 '2026 DMZ 종교인 생명 평화 순례'의 단장을 맡은 장적 스님은 22일간의 순례를 이같이 회고했다.

'상처를 넘어, 다시 연결되다-생명과 평화의 다리를 놓다'를 주제로 열린 평화 순례는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양구·화천·철원·연천을 거쳐 경기 파주 오두산 전망대까지 약 410㎞를 걷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불교계에서는 실천불교승가회 소속 장적 스님과 불교기후행동 상임대표 일문 스님을 비롯해 종호·무원·종묵·잇코 스님이 참여했다. 순례에는 총 43명의 5대 종교인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50분 걷고 10분 쉬는 방식으로 하루 약 20㎞를 행진했다. 발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해발 1200m가 넘는 산길을 오르고 비탈진 계곡 길을 걸었다.

장적 스님은 이번 순례를 '동사섭(同事攝)'을 이룬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스님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종교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었다"며 "종교 화합은 몸을 맞대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번 순례로 동사섭을 이룬 뜻깊은 순간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장적 스님은 "73년 전 전쟁으로 인한 아픔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땅과 사람은 여전히 전쟁 시간 속에 묶여 있다"며 "종교인들은 그 아픔의 역사에 응답해야 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마음을 나누는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평화는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다"고 강조하며 "서로 보듬고 생명과 평화를 되새기며 상생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종교인들과 순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봉선사 동종, 지혜의 울림 전할 유산"

28일 국보 승격식…남양주 첫 국보
호산 스님 "선대 스님들 이어 보존"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10월 28일 범종루 앞 특설무대에서 '봉선사 동종 국보 승격식'을 봉행했다. 이날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국보 지정서를 전달받았다.

조선 왕실의 발원으로 조성돼 550여 년 동안 봉선사를 지켜온 동종이 국보로 승격됐다. 조선 전기 동종 양식의 완성작으로 평가받는 봉선사 동종이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남양주시 최초의 국보이자 국내 동종 가운데 여섯 번째 국보로 이름을 올렸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10월 28일 범종루 앞 특설무대에서 '봉선사 동종 국보 승격식'을 봉행했다.

봉선사 동종은 조선 예종이 부왕 세조의 명복을 빌며 1469년 조성한 불교문화유산이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뒤 국가유산 가치 평가를 거쳐 올해 4월 23일 국보로 승격됐다.

주지 호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선대 스님들께서 몇백 년 동안 이 자리에서 동종을 지켜왔기에 국보 승격식까지 열리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도 동종을 잘 지키고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봉선사 동종은 2년여간 엄밀한 조사와 검토 끝에 여법한 절차에 따라 오늘 국보로 인정받게 됐다"며 "남양주 일대를 비롯해 주변에 있는 모든 사찰과 문화유산, 세계유산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보 봉선사 동종.

봉선사 신도들은 "봉선사 범종 소리는 모든 이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지혜의 울림"이라며 "동종의 역사적 가치와 불교문화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 그 정신과 의미를 올바르게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서원했다.

남양주 봉선사=박지운 기자

"이 시대 필요한 불사 매진"

비로자나국제선원 창립 20주년
자우 스님 "불교 세계화 지속"



'불성 회복'과 '불교 세계화'를 창건 이념으로 건립된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 스님)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법과 포교의 원력을 새롭게 다졌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10월 25일 대법당에서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자우 스님은 "20살이 된 비로자나국제선원이 앞으로도 이 시대에 필요한 불사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모든 불사가 큰마음으로 함께 해 준 불자님들 덕이기에 항상 감사의 축원을 드린다"며 감회를 밝혔다.

스위스 법계사 주지 무진 스님은 축하 법문을 통해 "앞으로도 수행과 실천이 함께 하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2006년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담마스쿨을 운영하며 미래세대 포교에 힘써왔다. 또 2018년부터 나란다 수행관을 운영하며 스님들이 안정적으로 수행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부터는 해외 지원 사업을 시작해 재난 지역에 구호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운 기자

티베트 식재(息災)호마의례 봉행

티베트 호마의례는 진각종 창종 80주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대한불교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의 「한국밀교문화집성 및 진호국가의례복원」 불사의 일환으로 호마(護摩)의례를 봉행합니다. 호마의례는 여래의 지혜를 상징하는 불(火)로 번뇌를 태워 없애고, 지혜와 자비를 증장하여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전통밀교의례입니다.

봉행 개요

행 사 명	티베트 천수천안대비존 식재호마의례
일 시	2026년 11월 12일(목) ~ 13일(금) (2일간)
장 소	대한불교진각종 총인원
집 전	남인도 간댄사 티베트 스님
본 존	십일면천수천안대비존 (관세음보살)
주 최	대한불교진각종
주 관	대한불교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진각종

봉행 세부 일정

첫째 날 (11월 12일)
- 13:30 ~ 17:00
십일면천수천안대비존 자수관정(自授灌頂)
성취기도

둘째 날 (11월 13일)
- 10:00 ~ 12:30
십일면천수천안대비존 성취기도
- 13:30 ~ 17:00
십일면천수천안대비존 식재호마 (회향)

의례의 의미와 봉행 안내

이번 기도는 제7대 달라이 라마가 저술한 법본과 의궤를 바탕으로 봉행된다. 12일에는 스스로 본존과 만다라를 관상하여 관정을 받는 자수관정(自授灌頂) 성취기도를 통해 죄장을 정화하고 본존과의 인연을 심화한다. 13일에는 13종의 공양물을 불에 바치며 장애 소멸과 복덕 증장을 발원하는 식재호마로 회향한다. 양일간 십일면천수천안대비존을 본존으로 모시는 만큼, 참석자는 몸과 마음의 청정함과 자비의 실천을 위해 기도 기간에는 반드시 채식해야 한다.

대한불교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

동병상련회 회원 모집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아
인생 지옥에 추락한 환난지우(患難之友) !
하루 빨리 이곳으로 모입시다 !

사례) 1. 중풍 맞은 사람
2. 미쳐버린 사람
3. 즉사한 사람

※ 필자도 크게 배신당하고 이승의 지옥에 떨어졌던 경험자입니다.

혼자서는 인생 지옥 탈출이 어렵습니다.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섭시다.
배신은 무책임이니 상호 책임지는 자들의
모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 집 일 2026년 11월 25일(수) 2시~5시
참 가 비 무료(※참가 후 자치회 결성)
교육장소 종로구 종로123 고영빌딩 7층
문 의 010-3823-3900(超虛 Lee)

(주)SMI명상
부설 **동병상련회**

멘탈(명상) 공부법 강좌

이 공부법은 서울대 합격 경험과 명상의 마음사용법을 융합한 최상의 공부법으로 서울대 합격이 목표다.

교육과정(각 과정 3시간씩)

1과정 멘탈 리셋	자아상(정체성) 확립
2과정 멘탈 관리	슬럼프 극복 · 스트레스 관리
3과정 멘탈 트레이닝	평정심(마음의 평화) 구축

강사 : 1. 이용권(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2. 超虛 Lee(자녀교육 성공한 학부모)

개 강 일 2026년 11월 24일(화) 2시~5시
교 육 비 90만원
교육장소 종로구 종로123 고영빌딩 7층
문 의 010-3823-3900(超虛 Lee)

(주)SMI명상 · 송원대 명상연구소

서로 비추는 깨달음의 만월, '통도사 강강수월래'

성파 대종사 "강강수월래, 완전한 깨달음 상징"

통도사, 10월 28일 '강강수월래'
종정 스님 원력, 불교 가치 재현
경계 허문 사부대중의 평등 발원

전통문화 속 불교 가르침 설해
사회 속 불교 주도적 역할 당부
"중생 정법으로 인도하는 방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하늘에 뜬 달이 모든 강물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비추듯 사부대중은 맞잡은 두 손으로 거대한 둥근 원(달)을 그려냈다. 하얀 메밀꽃이 만개한 영축산 자락 장밭들에서 대중이 한데 어우러져 도는 강강수월래는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고 각자의 마음에 깨달음의 원각(圓覺)을 상징하는 만월(滿月)을 띄워 서로를 환히 비추기 위한 의식이다. 신명 나는 전통 가락에 맞춘 참석자들의 발걸음은 메밀꽃밭 위를 온전히 서로 비추는 깨달음의 축제로 장엄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10월 28일 장밭뜰 메밀꽃밭에서 '메밀꽃 피는 날, 내 마음에도 달이 뜨네'를 주제로 '강강수월래' 행사를 개최했다.

통도사 메밀꽃밭에서 '메밀꽃 피는 날, 내 마음에도 달이 뜨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성파 스님의 원력으로 마련됐다. 단순한 민속놀이의 차용이나 재해석을 넘어, 강강수월래에 담긴 본연의 불교적 가치를 온전히 재현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 자리에는 성파 스님과 통도사 수좌 명신 스님, 주지 현덕 스님, 강주 인해 스님, 총무국장 진응 스님, 보화 스님을 비롯해 관음회, 사리탑 봉사회, 청년회, 적멸도량회, 선다회, 우담바라합창단 등 통도사 신행단체와 통도사 포교사회 및 울산포교사회 등 사부대중이 대거 동참해 넓은 장밭들을 메웠다.

행사의 백미인 대동춤 순서가 되자 장밭들의 분위기는 신명으로 들썩였다. 참석자들은 나눠준 끈을 함께 맞잡고 하얀 메밀꽃밭에서 11개의 원을 이뤄 둥글게 돌기 시작했다. 구성진 노래 장단에 따라 잰걸음으로 다 함께 원을 좁혔다가 다시 넓히기를 반복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주지 현덕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이번 행사가 품고 있는 불교적 진리를 설명했다.

현덕 스님은 "강강수월래는 밤하늘의 달이 무수한 강과 하천, 계곡에 빠짐없이 비추듯, 천 개의 강에 달이 비춘다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가 온 법계에 두루 한다는 뜻"이라며 "오늘 손에 손을 잡는 이 행사가 차별 없는 둥글고 하나의 세계, 참석한 모두가 평등한 부처님이라는 큰 가르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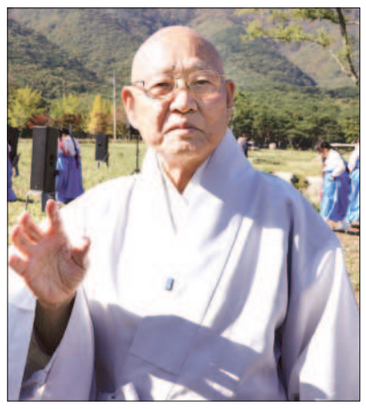
"'천강유수천강월 만리무운만리천(千江有水千江月 萬里無雲萬里天)', 강이 천 개면 달도 천 개이듯, 물이 있으면 달이 비치듯, 사람마다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는 자기 부처가 있습니다."

'강강수월래' 행사를 이끈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대중에게 친숙한 민속놀이 '강강술래'가 본래 불교의 '강강수월래'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하며, 전통문화에 흐르는 불교의 가르침을 설명했다.

성파 스님은 먼저 "강강술래라는 전통 놀이를 불교식으로 접목했다는 말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간 거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다"라며 "술래잡기의 '술래'가 아니라 물 수(水), 달 월(月), 올 래(來)를 쓰는 '수월래'가 본체"라고 어원을 짚었다.

스님은 강강수월래의 둥근 대열이 만월(滿月)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달마다 보름이 있지만 일 년 중 처음 시작하는 정월 대보름의 달은 조각달이 아닌 완전히 둥근 만월이며, 이는 곧 원각(圓覺·완전한 깨달음)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통도사가 10월 28일 장밭뜰 메밀꽃밭에서 '메밀꽃 피는 날, 내 마음에도 달이 뜨네'를 주제로 '강강수월래' 행사를 개최했다.


성파 스님은 '강강술래'가 본래 불교의 '강강수월래'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보아야 하듯, 둥근 원을 그리는 것은 대원각(大圓覺)을 상징한다"며 "강에 물만 있으면 달이 비치듯 사람 사람마다 성불할 수 있는 부처가 있으니 각자 자기 부처를 원만하게 깨달으라는 뜻에서 수월래를 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날 성파 스님은 강강수월래 외에도 심청전, 사물놀이 등 우리 문화 전반에 불교의 가르침이 뼈대처럼 자리하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했다.

스님은 고전소설 '심청전'도 불교적 깨달음의 과정으로 해석했다. "중생은 눈이 있어도 진리를 못 보는 눈이라 '심 봉사'로 나타낸 것이고, 그가 간절히 찾는 '심청'은 곧 우리가 성불하려는 대상, 즉 '부처'를 상징한다"며 "심 봉사가 심청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눈을 뜨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자 성불"이라고 비유했다.

사물놀이와 소리 문화의 기원에 대해서도 "사찰 종각의 사물(四物) 중 범종은 지상의 중생을, 법고는 땅의 중생을, 목어는 물속 중생을, 운판은 공중의 중생을 이고득락(離苦得樂)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대중에게 보급하고 동참시키기 위해 사물놀이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성파 스님은 불교가 사회 속에서 가져야 할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스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긴장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불교가 선도적으로 대중의 심성을 다듬고 생활의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해 정법으로 인도하는 방편이 바로 강강수월래"라며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정신으로 많은 사람을 동참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파 스님은 또 "앞으로는 통도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절이 선도적으로 강강수월래를 비롯한 문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련, 어린이 포교 40주년 후원의 날 개최

11월 14일, 경주 황룡원서
'어린이청소년센터' 본격화

사단법인 동련이 어린이 포교 40주년을 기념해 전국 불자들의 원력을 하나로 모으는 대규모 법석을 연다. 동련의 오랜 숙원인 '어린이·청소년센터' 건립 불사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동련(이사장 미수 스님)은 11월 14일 오후 3시 경북 경주 황룡원에서 '동련 어린이 포교 40주년 후원의 날'을 개최한다. 제81차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겸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사찰에서 활동 중인 어린이 포교 지도자와 후원자가 동참 예정이다.

행사의 핵심은 어린이·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모연이다. 2019년부터 건립 모연에 힘을 모은 동련은 이번 후원의 날을 동력 삼아 총 목표액 20억원 달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건립할 센터는 지상 5층, 연면적 991㎡ 규모다. 내부에는 북카페, 작은 도서관, 상담센터, 대강당 등을 갖춰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종합 수행 교육 도량으로 조성된다.

동련은 1986년 창립 이래 40년간 불교 교육 현장을 지켜온 어린이 포교 단체다. 매년 1000여 명의 전문 지도자를 교육하고 맞춤형 법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유튜브 채널 '동련ON'을 개설해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도 했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문서 포교지 월간 '연꽃'을 꾸준히 발행하며 지령 600호를 앞두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춘 다각적인 전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사장 미수 스님은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이번 40주년 행사가 그동안 정체됐던 센터 건립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단기출가학교 참가자 모집

11월 18일부터 6박 7일간 진행
20세부터 60세 성인 남녀 20명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일상을 벗어나 수행자의 삶을 체험하는 '범어사 단기출가학교'를 개최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최하고 범어사가 주관하는 이번 단기출가학교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조계종이 전국 주요 사찰에서 개최하는 단기출가학교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참된 휴식과 자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오늘, 출가합니다'라는 주제로 6박 7일간 세속의 번뇌를 완전히 내려놓고 스님들의 일상을 그대로 따른다. 매일 새벽 4시 도량석과 예불을 시작으로 108배, 참선, 발우공양, 울력 등 전통 승가의 공동체 생활을 탁마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범어사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오롯이 본래의 나를 마주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단기출가 경험이 불교 수행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나아가 실제 출가로도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심신이 건강하고 대중 생활이 가능한 20세부터 60세까지의 성인이며, 남녀 각 10명씩 총 2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35만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범어사 홈페이지(https://www.beome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이메일(beomeosa@daum.net)이나 범어사 포교국으로 방문 및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051-508-3122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불교합창 30년, 선율로 화합하다

제30회 울산광역시불교합창축제
10월 27일, 울산문화예술회관서

울산 불교계의 화합을 다지고 찬불음악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울산광역시불교합창축제가 올해로 서른 번째를 맞았다.

사단법인 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는 10월 27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30회 울산광역시불교합창축제'를 개최했다. 축제에서는 어린이부터 성인 합창단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음성공양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의 가르침을 전했다.

합창제는 정광사 어린이연꽃합창단의 '안녕, 불교의 사물'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정토사 가람청소년합창단이 덕진 스님 작사곡 '동해 갯마을'을 선보이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제주 보현사 맑은소리 봉사단은 '무상 알면 꽃길'을, 월봉사 월광합창단은 '물처럼 흐르고 흘러'를 들려줬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합창축제가 울산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이끄는 문화축제로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본 공연에서는 정광사 바라합창단이 '비천', 진각종 반야합창단이 '부처님의 깨달음',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이 '서천에 푸른 나무', 조계종울산사암연합합창단이 '관세음을 부르리' 등을 차례로 선보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로 담아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세상을 향기롭게, 해외지원 '하루 찻집'

11월 11일, 선문화교육관서
수익금 전액 해외 구호 기금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이사장 정여 스님)가 오는 11월 11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2층에서 해외지원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개최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전 11시 30분에는 개막 행사로 이사장 정여 스님의 인사말과 색소폰, 남성 성악가 연주 등 축하 무대가 펼쳐진다. 현장에서는 보이차, 연차, 오미자, 원두커피 등의 음료를 판매한다. 도서와 전통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등 기금 마련을 위한 물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날 모인 후원금은 전액 캄보디아와 인도 등 해외 구호 및 교육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세상을 향기롭게는 그동안 아시아 빈곤 지역의 주거 및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시엠립 로터스월드 아동센터를 통해 캄보디아 학생들을 위한 통학용 자전거 총 2900대를 지원했다. 또한 주택 3채와 학교 2동 건립을 지원하여 열악한 현지 인프라를 개선했다. 최근에는 시엠립 외곽 덩까오 초등학교를 방문해 빈곤층 아동들에게 학용품 140세트와 간식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고종 경남교구, 가사불사 회향

10월 24일, 법회 · 태고문화축제
"공덕 회향하고 수행 정신 계승"

태고종 경남교구종무원(종무원장 황봉 스님)이 불자들의 정성과 신심을 모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전법의 원력을 다지는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경남교구는 10월 24일 창원 부림문화광장 특설무대에서 '2026 가사불사 회향법회 및 태고문화축제'를 봉행했다.

이번 가사불사는 경남교구 소속 각 사찰과 불자들이 정성을 모아 이룬 불사로, 출가 수행자의 청정한 계행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행과 전법의 원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교구종무원장 황봉 스님은 "가사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널리 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뜻깊은 불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들과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이룬 공덕을 바탕으로 청정한 수행정신을 계승하고, 종단의 화합과 불교 발전을 위해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김해 불인사, 진경 스님 초청법회

10월 25일 '나로부터의 자유' 주제
법화경 봉찬 6차 100일 기도 입재



김해 불인사(주지 송산 스님)가 법화경 봉찬 천일기도의 원력을 이어가며 참된 자아를 성찰하고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불인사는 10월 25일 거창 붓다선원장 진경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하고, 법화경 봉찬 천일기도 가운데 제6차 100일 기도에 입재했다.

진경 스님은 저서 제목이기도 한 '나로부터의 자유, 세상을 비추다'를 주제로 한 법문에서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관찰하고 깨닫는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어린 시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졌던 존재에 대한 의문과 수행 과정에서 느낀 깨달음의 경험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임을 일깨웠다.

이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호흡과 선정 수행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일상에서도 꾸준한 정진으로 지혜를 증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불인사는 법회 참석 대중의 부단한 정진을 발원하며 진경 스님의 저서를 선물했다.

이와 함께 불인사는 법화경 봉찬 천일기도 제6차 100일 기도에 입재했다. 기도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퇴전의 원력으로 정진”

‘제3기 수덕사 단기출가 보살행학교’
27일 입재…11명 입교, 6명 삭발
11월 5일까지 9박 10일간 일정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는 10월 27일 ‘제3기 수덕사 단기출가 보살행학교’ 삭발식과 고불식을 봉행했다. 행자 11명이 입교, 9박 10일간의 수행에 들어갔다.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출가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며 하심과 인욕을 배우는 단기출가학교가 세 번째 문을 열었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10월 27일 ‘제3기 수덕사 단기출가 보살행학교’ 삭발식과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번 출가학교에는 행자 11명이 입교해 9박 10일간의 수행에 들어갔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수덕사가 주관하는 이번 보살행학교에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선발 과정과 최종 갈마를 거쳐 11명이 입교자로 확정됐으며, 이 가운데 남성 3명과 여성 3명 등 6명이 삭발에 동참했다.

삭발식에서 행자들은 참회진언을 염송하며 머리카락을 깎고, 무명과 번뇌를 끊어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서원했다. 이어 부모님과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고 행자복을 받으며 출가 수행자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주지 도신 스님은 삭발식에서 “삭발은 좋아했던 것도 미워했던 것도 모두 내려놓겠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그 마음을 지키겠다는 다짐”이라며 “먼 길을 걷다가 손에 들었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듯 자신을 내려놓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심적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종단은 출가 체험 학교를 표준화된 공식 출가 인재 양성 체계로 발전시키고, 수행 인력 전산 관리망 구축과 행자 교육 기간 단축, 실효성 있는 지원과 혜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학감 향일 스님은 고불문을 봉독하며 부처님 전에 행자들의 입재와 열흘간의 정진을 고했다.

행자들은 11월 5일까지 새벽 예불을 시작으로 참선, 발우공양, 경전 강의, 도량 소제 등 수행자의 일과에 따라 생활한다. 교육과정에는 삼귀의와 수계식의 의미, 조계종사, 불교 의식과 의례, 사찰 예절, 자율정진 등이 포함됐다.

교육 기간에는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제한하며, 정해진 일과와 청규에 따라 공동생활을 이어간다. 행자들은 11월 5일 회향식과 수료증 수여를 끝으로 9박 10일간의 출가 수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계 스님들과 탁발로 자비나눔

광주 길상사, 10월 25일 탁발

광주 길상사(주지 명선 스님)는 10월 25일 법당과 광주 광산구 산정로 일원에서 ‘천년의 발우,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제2회 세계 스님과 함께하는 전통 탁발문화행사’를 봉행했다.

각국 스님들과 참가자들은 길상사를 출발해 탁발 순례를 진행했다. 모인 보시금은 지역사회 장학사업과 복지사업,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에 활용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14년 정비 마무리…고려 서봉사 새 모습

용인시, 22일 정비사업 준공식
7차례 조사로 사찰 역사 확인



고려시대 화엄대찰로 번성했던 용인 서봉사의 옛 모습이 14년에 걸친 발굴·정비사업을 통해 드러났다. 금당과 승방 등 사찰 건물터와 가람 배치가 확인되면서 고려와 조선시대 불교문화와 건축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월 22일 광교산 자락에 위치한 서봉사지에서 ‘서봉사지 발굴지 정비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사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서봉사지는 단순한 역사공간이 아니라 불교의 오랜 정신과 전통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이라며 “현오국사탑비가 남아 있는 만큼 발굴과 정비에 그치지 않고 서봉사의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공식 후 참석자들은 정비된 유적 현장을 둘러보며 고려·조선시대 사찰 건물터와 가람 배치, 발굴 성과 등을 살펴봤다.

서봉사(瑞峰寺)는 광교산 남쪽 기슭에 자리했던 고려시대의 대규모 사찰이다. 정확한 창건 연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려 전기인 11세기 무렵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서봉사는 광교산 남쪽 능선을 따라 6단의 대지를 조성하고, 중원의 4~6단에 금당과 부속 건물을 배치한 대규모 가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서봉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2012년부터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발굴·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7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瑞峰寺(서봉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를 비롯해 연화문 장식기와, 금동보관, 석조불상, 연봉 장식, 청동향그릇, 철제무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서울 미타사, 음악과 전통문화의 향연

10월 24일, 3회 풍경소리 음악회
제4회 느티나무 문화 체험 축제



서울 미타사(주지 상덕 스님)는 10월 24일 천불전 앞에서 ‘제3회 미타사 풍경소리 음악회’와 ‘제4회 미타사 느티나무 전통문화 체험축제’를 개최했다.

풍경소리 음악회는 나라연 합창단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등으로 음악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소프라노 정시영과 테너 김종일은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를 함께 열창했다.

음악회에 앞서서는 ‘가을향기 불교향기 함께 즐겨요’를 주제로 제4회 미타사 느티나무 전통문화 체험축제가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전통 향주머니 만들기, 부처님 되어보기 체험, 소원지 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옥수복지관 행복바자회도 함께 열려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노덕현 기자

오백나한 지혜 기리며 정혜결사 정신 계승

거조사, 10월 25일 나한대재
영산전 세계유산 등재 추진도



영천 거조사(주지 법타 스님)는 10월 25일 영산전에서 526분의 나한에게 만발공양을 올리는 나한대재를 봉행했다. 참석 대중은 저마다의 서원을 담아 오백나한에게 공양을 올리며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널리 펼쳐지기를 발원했다.

거조사 나한대재는 고려시대부터 국난 극복과 민생 안정을 기원하며 봉행해 온 전통의식이다.

주지 법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보조국사 지눌 스님께서 타락한 고려불교를 다시 본자리로, 정법으로 돌려놓는 운동을 여기서 시작했다”며 “그것이 바로 정혜결사”라고 설명했다.

거조사는 현재 영산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전각에 봉안된 526나한상의 보물 지정을 추진하며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AI시대, 지식에 자비 더해야 지혜 된다”

다보사, 10월 24일 철학콘서트
김춘식 교수·안상헌 작가 발제



나주 다보사(주지 만민 스님)는 10월 24일 ‘AI시대를 위한 철학콘서트’를 개최했다.

‘AI는 모르는 인간의 지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이번 철학콘서트는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문명 전환기에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동서양 철학과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춘식 동신대 교수는 발제에서 AI 시대 인간의 지혜와 철학적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상헌 작가는 “지식은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할 때 지혜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기술이 발전할수록 멈출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한 지혜”라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탐욕 태우고 자비 밝힌 ‘낙화축제’

10월 24~25일, 영평사 일원서



세종 영평사(주지 환성 스님)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026 영평사 가을 낙화축제’를 개최했다. ‘붉은 불꽃이 밤하늘에 쓰는 천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전통 낙화법 의식에 명상과 음악 공연을 접목해 불교 전통문화의 의미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불교낙화법보존위원회 이사장 환성 스님은 낙화법 의식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를 발원했다. 이어 관람객들에게 명상을 안내하고 “불꽃이 피어오를 때 탐욕과 분노를 알아차리고, 사그라질 때 그 마음도 함께 비워버리라”고 설했다.

낙화법은 세종시불교낙화법보존위원회의 전승 노력으로 2024년 세종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영평사는 2016년 첫 낙화전통문화축제 개최 이후 낙화법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려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정선 정암사, 창건 1381주년 개산문화제

10월 23~25일, 천도재·음악회



정선 정암사(주지 천웅 스님)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찰 경내와 만항재 산상화원 일원에서 ‘2026 정선 정암사 개산문화제’를 개최했다.

첫날인 23일에는 창건 1381주년 개산재가 봉행됐다.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을 법주로 영산재와 범패작법 전통 이수자들이 참여해 진영이운과 신중작법, 개산조 영반 등 전통 의례를 진행하며 자장율사의 창건 정신을 되새겼다.

주지 천웅 스님은 “정암사 개산문화제가 전통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화합의 장으로 모든 이에게 평안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어 호국영령과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산노동자, 시대와 지역의 아픔 속에서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재가 봉행됐다. 영산재와 범패작법에 이어 승무가 펼쳐져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24일에는 불교 수행을 현대 예술로 풀어낸 공연이 펼쳐졌다. 또 해발 약 1300m의 만항재 산상화원에서는 문학콘서트 ‘함백산 풍류, 말과 멋’이 열렸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삼국유사〉의 자장 율사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정암사 탐구 프로젝트, 옛사람을 보다’가 선보였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함백산 다양성의 날’이 열렸다.

유제만 동해지국장

300년 전 화엄법석, 금산사서 다시 펼친다

10월 24일 화엄산림 입재법회
11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는 10월 24일 처영기념관에서 ‘환성 지안 스님 화엄산림 300주년 기념 금산사 화엄산림’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화평 스님은 “300년 전 환성 지안 큰스님께서 1400여 대중과 화엄대법회를 여셨던 뜻을 기리고자 한다”며 “화엄의 깊은 지혜가 온 누리에 퍼져 모든 불자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화엄산림은 11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5회에 걸쳐 펼쳐진다.

첫 법사로 나선 전북불교회관·보현사 회주 평상 스님은 ‘화엄의 세계관(세주묘엄품)’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금산사 화엄산림은 △10월 31일 수진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의 ‘화엄의 보살행(십주, 십행, 십지품)’ △11월 7일 지환 스님(백장선원 선덕)의 ‘보살의 발심(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정행품)’ △11월 14일 신공 스님(김해 동림선원 주지)의 ‘선재동자 구법행(입법계품)’ △11월 21일 도법 스님(금산사 회주)의 ‘보현행자의 삶(보현행원품)’으로 이어진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천 지장사, 산신대재·전국백일장

자연·불교·문학으로 마음 나눠



김천 지장사(주지 무암 스님)는 10월 25일 제6회 백마산 산신대재와 제4회 마음쉬는 산사문학제 전국백일장을 개최했다.

산신대재에서는 백마산의 자연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기원했으며, 이어 열린 산사문학제에서는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등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과 문학의 의미를 되새겼다.

주지 무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고, 문학과 수행이 하나 되며,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는 소중한 인연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전국백일장은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 학인 스님 등을 대상으로 운문과 산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운문 부문은 ‘부모님’ ‘마음의 고향’ ‘절로 가는 길’ ‘여행’, 산문 부문은 ‘가을하늘’ ‘가족’ ‘나의 부처님’ ‘산사에서’가 시제로 제시됐다.

대상인 경상북도지사상은 임다연 학생(농소초)에게 돌아갔다. 금상인 대한불교조계종상은 정정희 씨가 수상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익산 관음사, ‘제9회 공양미 콘서트’ 성료

익산시에 공양미 2500kg 전달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 스님)는 10월 24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어려운 이웃과 고단한 시민들을 위로하는 ‘제9회 공양미 콘서트’를 개최했다.

관음사불교청년회(회장 최영애)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심청의 숭고한 효심을 계승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불자들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모인 공양미 2500kg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최정호 익산시장에게 기탁됐다.

주지 덕림 스님은 “한 톨의 쌀에 깃든 불자들의 정성이 지친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도심 사찰로서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자비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진한 얼굴의 구도자…‘동자’ 기획전

‘동자동행, 작은 몸에 담긴 세계’
불교중앙博, 내년 2월 말까지
흥천사·상원사 동자상 등 93점
역대 최대 규모의 동자 전시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둥글고 통통한 볼에 옅은 미소,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살집 있는 작은 체구의 앳된 동자가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허리를 굽힌 채 누군가를 향해 시선을 보낸다. 문수보살님을 바라보며 배움을 청하는 선재동자의 모습이다. 첫 마음과 깨달음에 이른 마지막 순간이 담겼다. 1466년 세조의 둘째 딸 의숙공주 부부가 왕실의 평안을 기원하며 발원한 상원사 목조선재동자상이다.

양쪽으로 틀어 올리거나 길게 땋아 내린 머리, 맨발에 짚신을 신은 다채로운 모습의 동자 7명도 눈길을 끈다. 현대의 크로스백을 떠올리게 하는 가방을 매고, 저마다 벼루, 과일, 동물 등 다른 지물(持物)을 든 칠장사 목조동자상이다. 1706년 조각승 금문 스님 등이 제작한 것으로, 조선 후기 불교조각의 자유로운 조형미를 보여준다.

불상이나 불화의 주존 뒤에 가려져 있던 동자들이 사찰을 나와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이 10월 28일 개막한 기획전 ‘동자동행(童子同行), 작은 몸에 담긴 세계’에서다. 전국 주요 사찰의 동자 성보 47건 93점을 선보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자 전시다. 보물 6건, 유형문화유산 16건 등, 문화유산자료 1건 등도 포함됐다.

이번 전시는 그간 부처님과 보살을 모시는 보조적 존재로 여겨졌던 동자를 구도와 실천의 주체이자 깨달음을 향한 ‘초발심(初發心)’의 상징으로 재조명한다. 또한 불·보살의 곁을 지키는 시자(侍者), 인간의 선악을 기록하고 업의 무게를 재는 명부의 기록자 등 불교문화유산 속에 다양하게 등장해 온 동자의 모습과 의미를 담아내는 자리다.


칠장사 목조동자상. 사진 제공=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기획전의 동자상을 살펴보고 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이 상원사 목조선재동자상을 설명하고 있다.

전시에서는 〈대반열반경〉에 등장하는 설산동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동자의 구도심을 다룬다. 옥천사 성보박물관에 봉안됐던 〈대반열반경〉을 비롯해 봉은사 영산전 목조대좌, 안성 칠장사 목조동자상 등을 선보인다.

선재동자가 여러 선지식을 찾아가며 깨달음을 얻는 구법의 여정도 조명한다. 부산 범어사 백의관음보살도, 평창 상원사 목조선재동자상, 보물로 지정된 서울 흥천사 목조남순동자·해상용왕상을 볼 수 있는 기회다.

나한·독성·산신 등을 모시는 시자로서의 동자도 관람객을 맞이한다. 안동 광흥사 소조동자상과 순천 송광사·진관사 십육나한도 속 동자들은 차를 달이거나 거북이를 다루는 해학적인 표정으로 엄숙한 불교미술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명부세계에서 망자의 업을 기록하는 선악동자의 역할도 살펴볼 수 있다. 돌을 부드럽게 다듬어 만든 봉국사 석조동자상, 조선 후기 명부전 동자상으로는 드물게 12존이 완전히 남아 있는 옥천사 석조동자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1990년에 도난당했다가 2017년 환수돼 서울에서 처음 공개되는 18세기 보덕사 지장시왕도는 동자를 상하단에 파격적으로 배치한 독특한 구도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동자상들의 익살스러운 표정, 저마다 다른 머리 모양과 옷차림, 손에 든 붓·벼루·복숭아·연꽃 등 지물에 담긴 상징성을 비교해 보는 것도 관람 포인트다. 전시의 마지막은 업경대를 모티브로 한 거울 공간에서 마무리되며, 관람객이 스스로의 삶과 염원을 담담히 돌이켜보도록 이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자신을 돌아보고 배움과 실천, 새로운 시작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일반 공개를 하루 앞둔 10월 28일 열린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성보의 곁자리에 있던 동자를 법석의 주역으로 모신 뜻깊은 자리”라며 “일상에 지친 현대인이 마음 깊은 곳의 청정한 불성을 깨우고 본래의 천진면목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 역시 “동자들의 맑고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며 잊고 살았던 내 안의 가장 순수한 본성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이어지며, 11월 9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불교조각과 회화 속 동자의 모습과 의미를 다루는 전시 연계 인문학 강좌도 함께 운영된다.

대지국사 승탑 원위치 확인

불교문화유산硏 조사 성과 발표
기존 배치 복원안 재검토 근거

고양 삼천사지 대지국사 승탑의 원위치가 기존 학계 추정과 달리 중정의 중앙인 ‘현재 지대석이 있는 위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승탑원 인근에서 고려 전기 고승의 장례문화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석실분 1기도 새롭게 발견됐다.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소장 혜공스님, 이하 연구소)는 고양특례시가 의뢰한 ‘고양 삼천사지 대지국사 승탑원’ 구역 발굴조사에서 이 같은 성과를 확보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고양 삼천사지 대지국사 승탑원은 고려 전기 법상종 고승인 대지국사 법경(943~1034년경) 스님을 기리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5~2008년 서울역사박물관의 발굴 조사 당시에는 승탑 지대석이 이동된 것으로 보고, 중정 중심을 기준으로 탑비와 승탑이 마주 보는 배치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기존 추정 위치에서는 적심시설이 나오지 않은 반면, 현재 지대석 아래에서는 적심시설과 생토층이 확인됐다. 연구소는 이를 근거로 승탑이 처음부터 중정 중앙인 현재 위치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양 삼천사지 승탑원 공간 구성. 사진 제공=불교문화유산연구소

이러한 배치는 약 60년 뒤 조성된 개성 영통사 대각국사 의천의 승탑원인 경선원과 비교할 수 있어 고려 승탑원의 공간 구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사구역 북쪽 약 50m 지점의 대형 석축 위에서는 봉분과 호석이 비교적 잘 보존된 석실분 1기가 확인됐다. 깊이 2.45m, 높이 0.9m, 너비 1.1m의 규모로, 화강암 판석으로 축조됐으며 현재 입구가 개방된 상태다.

특히 석실분 아래 석축 석재에서 대지국사 승탑원 석축 석재와 유사한 쐐기흔이, 주변 지표에서 승탑원 출토품과 유사한 어골문 평기와가 각각 발견돼 석실분과 승탑원 간의 연관성이 제기된다. 고려 전기 고승의 장례 과정 관련 비문 기록에 비춰볼 때, 이번에 확인된 석실분이 1034년경 입적한 대지국사 법경 스님의 장례나 승탑원 조성 관련 시설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발굴조사 결과를 향후 정비계획에 반영해 삼천사 대지국사 승탑원지의 문화유산 가치를 보존해 나갈 방침이다. 배희정 기자

예경 모습 담긴 마곡사 동종 보물 되다

국가유산청, 10월 26일 4건 지정
상원사 삼존상·송광사 불회도 등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불정심다라니경(한문·언해본)’을 비롯해 ‘평창 상원사 석가여래삼존좌상·16나한상 일괄 및 복장유물’, ‘순천 송광사 오십삼불회도’, ‘공주 마곡사 동종’을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소장한 〈불정심다라니경〉은 한문본 3권과 언해본 3권이 함께 수록됐다. 한문본은 1485년(성종 16) 인수왕대비의 주도로 간행된 목판본이며, 언해본은 앞서 1455년(세조 1) 조성된 금속활자로 인쇄됐다. 한문·언해본 구성을 갖춘 경전 중 조성 당시의 원형을 온전히 유지해 보물로 지정된 첫 사례로, 내용과 인쇄 상태가 뛰어난 선본으로 평가받았다.


‘공주 마곡사 동종’.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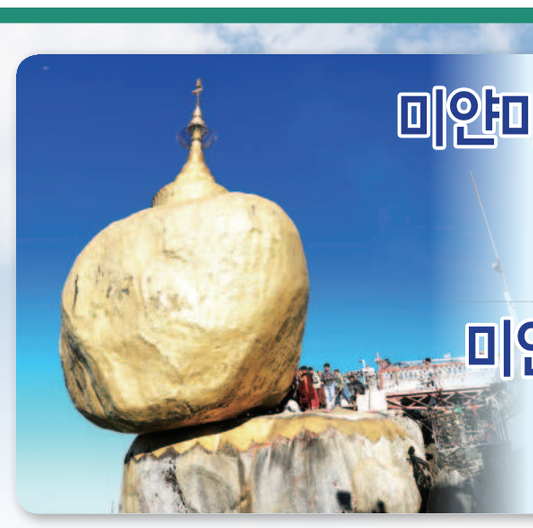
‘평창 상원사 석가여래삼존좌상·16나한상 일괄 및 복장유물’은 소조상과 목조상이 어우러진 구성을 보인다. 본래 경북 예천 운복사에 봉안됐던 것으로, 15세기 후반 양식을 띤 소조상에 일부 없어진 불상을 1711년 목조로 다시 조성했다. 1885~1886년경 상원사로 옮겨진 뒤 왕실 주도로 다시 채색됐다. 복장 유물인 1467년판 다라니로 소조상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순천 송광사 오십삼불회도’는 1725년 당대 수화승 의겸(義謙)을 중심으로 한 화승 26명이 제작에 참여한 불화다. 오십삼불 신앙을 불화로 구현한 사례로, 그 구성이 완전히 남아 있으며, 의겸 특유의 화풍을 보여준다. 부처님 명호를 적어 신앙적 의미를 높였으며, 봉안처와 조성 시기 등이 명확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공주 마곡사 동종’은 몸체에 새겨진 주종기(鑄鍾記)를 통해 1654년(효종 5년) 승장 보은이 제작했음이 확인된다. 쌍룡 형태의 종뉴(종의 고리)와 종신(종 몸체)을 별도로 주조해 결합한 당시 공법이 시주 물목 기록으로 확인돼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 아울러 승려가 보살상 앞에서 무릎을 구부려 예경하는 모습과 함께 왕실을 축원하는 삼전패와 승려 축원용 원패가 새겨져 신앙·역사적 가치가 크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된 보물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배희정 기자


2027년 이탈리아 돌로미테 여행 9일
돌로미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6월 말은 야생화가 만발한 최고의 계절입니다.
예약접수중
출발일 : 1차 6월23일~7월01일
2차 7월05일~7월13일


미얀마 짜익티요 성지순례 6일
1월17일 출발 ▶동참금 : 250만원
■ 일정: 인천-양곤-바고(짜익푼파고다)-짜익티요(황금바위)-시리암(물의 사원)-양곤-인천
미얀마 바간, 헤호 순례 6일
1월21일 출발 ▶동참금 : 330만원
■ 일정: 인천-양곤-헤호-바간-양곤-인천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출발일 : 27년1월13일 출발~1월20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27년 1월16일~1월25일(10일)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 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출발일 : 3월26일 출발~3월30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27년3월14일 출발~19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출발일 : 27년5월25일 출발~5월31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실크로드, 돈황석굴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길
27년 4월08일 출발~4월17일 도착
27년 5월24일 출발~6월02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출발일 : 6월12일~6월27일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다비작법, 국가유산 지정 시급”

전통다비작법보존회 학술대회
원명 스님, 전승 단절 위기 경고
좌담 스님들 “보존 · 전승 기원”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전통다비작법보존회가 10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한국불교 전통 다비작법의 원형 복원과 전승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불교의 우주관과 수행 정신의 정수가 담긴 다비작법이 구전으로 이어져 온 탓에, 전승자 감소 등으로 단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사)전통다비작법보존회(이사장 무공 스님)는 10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 전통 다비작법, 동아시아 불교전통에서 한국불교 다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통다비작법: 불교무형유산, 살아 숨 쉬는 오늘의 가치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조계종 의례위원장 원명 스님은 “다비작법은 육신이라는 마지막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수행의 연장선이자, 불교무형유산의 엄숙한 정점”이라며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전통 다비작법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불교유산은 세대를 넘어 고통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살아 숨 쉬는 가치임에도, 국가 지정 문화유산 중 유형유산(국보 52.8%, 보물 58.2%)에 비해 무형유산은 전체 163건 중 9개 종목 11건(6.7%)에 불과하다”며 무형유산 분야의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어 “인도에서 유래해 우리 민족의 정서 및 유·도교 전통과 융합된 한국식 다비작법은 염습부터 거화, 습골에 이르기까지 독창적인 종합 예술이자 한국불교 고유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구전에 의존해 온 의식의 단절 위기를 경고했다. 그동안 문중과 대덕 스님들의 구전으로 은밀히 엄격하게 전수되다 보니, 의식을 온전히 집전할 전문 다비사와 장인이 급격히 줄었다는 것이다.

원명 스님은 “다비는 인간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존엄하게 장엄하고 남은 이들에게 무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생명존중과 치유의 의식”이라며 “참석자들이 슬픔을 공유하며 공동체적 유대로 승화시키는 힘을 지닌 만큼, 체계적 기록화와 제도적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천년을 이어온 지혜의 맥을 영영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원형은 엄격히 보존하되,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좌담회(좌장 금강 스님)에서도 다비작법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무형유산 지정 추진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은 “다비는 인위적인 연습과 자료 축적이 어려운 만큼, 체계화를 통해 원형을 기록·계승하고 나아가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은 “출가는 혼자 했더라도 떠날 때는 승가 공동체가 함께 애도하고 회향할 수 있도록 다비가 잘 보존·전승되어서 일반화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보존회 이사장 무공 스님은 “지난 40여 년간 전국 다비를 참관하며 절차 간소화로 전통 원형이 퇴색되는 현실을 절감했다”며 원형 복원과 계승을 위한 국가무형유산 지정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제4회 한암상 수상자에 무관 대종사

제3회 한국불교학회 학술상 6명도
11월 11일 추계학술대회서 시상식



조계종 전계대화상 태허 무관(太虛 無觀) 대종사〈사진〉가 제4회 한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3회 한국불교학회 학술상에는 자현·정명·염경·명준·일윤·규은 스님 등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자현 스님)는 이 같은 내용의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한암상은 한국불교의 수행과 교육, 교학의 전통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데 귀감이 된 인물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학술상 운영위원회는 “평생에 걸쳐 실천해 온 무관 대종사의 수행과 계율 정신, 승가 교육과 계율 전승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며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실천하는 참된 수행자의 가치와 정신이 후학과 학계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함께 발표한 제3회 한국불교학회 학술상 우수상에는 자현 스님(중앙승가대)의 ‘범일(梵日)의 전기에서 확인되는 붓다화 노력’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정명 스님(동국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사건을 통해 본 사찰의 법적 주체성)△염경 스님(동국대, 통일신라 이불병좌상의 도상적 성격 재검토) △명준 스님(동국대, 백파 긍선 〈선요기〉의 삼종선 수행론에 나타난 수증계위와 법통 계승의 구조) △일윤 스님(경희대, 배제에서 분화로-불교정화운동의 배타적 정통화와 승가상의 재구성) △규은 스님(중앙승가대,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 나타난 수행자의 병통과 선오후수)이 각각 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2026년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최되며, 당일 학술상 수상 논문도 발표된다. 배희정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⑫ 공적영지(空寂靈智)

늘 명징한 그 자리에서

空 寂 靈 智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부족하고 미혹된 존재로 여긴다. “나는 번뇌가 많아”, “지혜가 부족해”라며 스스로를 낮추고, 내면의 참된 모습을 깨닫지 못한 채 진리를 밖에서만 구하려 한다. 스승을 찾고 경전을 읽으면서도, 가르침의 참뜻이 자기 안의 본래 밝은 성품을 깨우는 데 있음을 잊고, 외적인 권위와 조건에 의지한다.

그러나 대승의 심성론은 이러한 자기 부정을 단호히 거부한다. 번뇌가 아무리 마음을 어지럽혀도 마음의 본래 밝은 성품은 사라지지 않는다. 진리는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불교는 무자성(無自性)·연기(緣起)·공(空)의 이치로 결핍의 고리를 끊는다. 나를 괴롭히는 번뇌나 결핍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공적(空寂)하다. 그러나 텅 비어 고요하다고 해서 어둡거나 무감각하지 않다. 모든 것을 밝게 알아차리는 영지(靈知)가 본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어 있으면서도 신령하게 깨어 있는 마음의 성품을 ‘공적영지(空寂靈知)’라 한다.

당나라 하택 신회 선사(684~758)는 고요함과 알아차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했다. “고요할 때 그 본체는 스스로 알고, 알아차릴 때 그 본체는 스스로 고요하다(寂時體自知, 知時體自寂)”라고 했다. 고요함과 알아차림은 둘이 아니며, 고요하면서도 밝게 깨어 있는 마음이 우리의 본래 근원임을 뜻한다.

한국 선학의 기틀을 다진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은 〈수심결〉에서 공적영지의 의미와 마음의 본래 성품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아 마침내 텅 비고 고요하나, 결코 끊어져 사라진 것이 아니니 신령한 알아차림은 어둡지 않다. 바로 이 공적영지의 마음이 너의 본래 모습이다.”

이어 지눌은 깨달음을 밖에서 구하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일깨운다. “어찌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가? 망령된 감정과 집착이 갑자기 일어나 스스로의 마음을 가렸기 때문이다. 또한 어찌 다시 밖에서 찾으려 하는가? 이 마음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가 없다.”

마음은 번뇌로 흔들리더라도 그 본래 바탕까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홀연히 일어난 망령된 감정과 집착을 ‘나’라고 여기는 순간, 스스로 그 밝음을 가릴 뿐이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갖추어진 본래 마음을 바로 보는 데 있다.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가 없다면, 공적영지는 우리가 찾아야 할 외부의 무엇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갖추어진 마음의 바탕이다. 밖을 향하던 시선을 돌려 내면의 밝음을 신뢰하고, 번뇌 속에서도 그 밝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공적영지가 일깨우는 삶의 지혜이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구산선문과 쌍계사 삼신산문 법통 조명

한국불교사학회 · 한국불교사硏
11월 12일 제40회 집중세미나

진감 혜소 선사는 당나라 마조 도일 문하의 창주 신감에게 법을 전수받은 뒤 신라로 돌아와 삼법 화상의 옛 절터에 옥천사(현 쌍계사)를 창건했다. 그러나 진감 선사의 선풍을 이은 쌍계사 삼신산문이 가지산문·실상산문 등 구산선문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지 못한 까닭은 불교사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쌍계사 삼신산문의 법맥을 조명하며 이 같은 의문점을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불교사학회·한국불교사연구소(회장·소장 고영섭)는 11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동국대 혜화관 2층 고순청세미나실에서 ‘나말여초 구산선문과 삼신산문의 법통과 법맥’을 주제로 ‘쌍계사 학술대회 겸 제40회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 스님)이 주관하고 쌍계사가 후원하는 행사다.

학술대회는 김호귀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1·2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에서는 고산문화재단 이사장 영담 스님이 ‘삼신산 쌍계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이어 오용석 원광대 HK교수가 ‘진감 혜소와 지증 도헌의 법통과 법맥’을, 김은서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원이 ‘최치원의 진감혜소대공영탑비명 재검토’를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서재택 한국불교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이정인 동국대 박사가 참여한다.

2부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쌍계사 삼신산문은 형성되었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남무희 국민대 외래교수가 논평을 맡는다. 이어 조경철 연세대 객원교수가 ‘선문조사예참문의 구산선문 선정 근거’를 발표하고, 박경미 동국대 외래교수가 논평에 나선다. 주제 발표 후에는 1시간 동안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배희정 기자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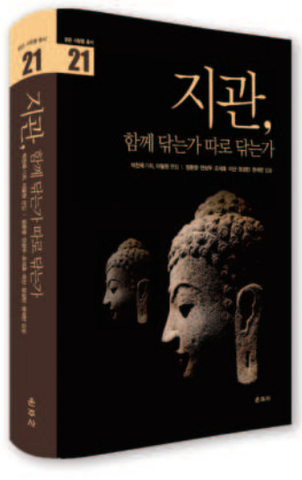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3,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22,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20,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3,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4,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5,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이필원 외/24,000원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이필원 외/25,000원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한상희 외/23,000원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 이필원 외/25,000원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정준영 외/26,000원

지관,
함께 닦는가 따로 닦는가
학술연찬회
주제: 지관, 함께 닦는가 따로 닦는가
일시: 11월 7일(토) 10시-18시
장소: 동국대학교 본관 남산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수행 방법인 지(止, 사마타)와 관(觀, 위빠사나)는 서로 다른 수행인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르고,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닦아야 한다면, 동시에 닦는 것인가, 순서가 있는가?

정준영·안성두·조석효·미산·엄성민·권석만 집필
신국판양장/값 27,000원



Ch

YouTube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연찬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8~11/3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영수 영원의 나무	금강	담마북스
2	은둔	조현	불광출판사
3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4	선문정로(성철스님 평석)	퇴옹성철	장경각
5	무아와 일심	한자경	김영사
6	붓다의 오리지널 명상법	일중	조계종출판사
7	염주의 역사와 수행 이야기	태경	조계종출판사
8	신중도의 세계	현주	불광출판사
9	마음으로 그리는 극락세계	Park Chad Sung Jin	한영출판사
10	영화선사의 사십이장경 강설	영화/상욱, 원안	위앙북스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천년의 지혜	이진영 엮음	불광출판사
2	무영수 영원의 나무	금강	담마북스
3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조계종출판사
4	나도 내 마음을 모를때 불교 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5	불멸 (1)	이각	지혜의눈
6	불멸 (3)	이각	지혜의눈
7	요가 수트라	B.K.S.아헹가/현천	선요가
8	법화경 (하)	무비	불광출판사
9	법화경 (상)	무비	불광출판사
10	밀교 즉신 성불의 길	화령	운주사

기술은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킬까?



붓다, 포스트휴먼에 답하다
보일 스님 지음
운주사
2만4000원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디지털 영생·AI 의식
'포스트휴먼' 시대 불교의 의미 모색
사성제 바탕 기술문명 방향 제시
"깨달음은 정보 아닌 체득 과정"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에 '붓다, AI 윤리를 답하다'를 연재하고 있는 AI부디즘학술원장 보일 스님의 신간 〈붓다, 포스트휴먼에 답하다〉는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인간과 삶을 불교의 관점에서 성찰한 책이다.

'포스트휴먼'은 '향후 등장할 인간 이후의 존재 양식'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통해 기억과 사고 과정을 외부 서버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네트워크형 의식', 과학기술로 수명을 수백 년 이상 연장한 존재, 나아가 육체를 완전히 벗고 디지털 아바타로만 존재는 순수 정보 존재 등이 그 예다. 마인드 업로딩과 디지털 영생,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알고리즘과 자유의지, AI의 의식과 불성 등은 더 이상 공상과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는 신체와 정서,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기술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인류 진화의 질적 단절을 예고한다. 그렇다면 '포스트휴먼' 시대에 불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원효 스님의 열반관을 통해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의 탈신체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보일 스님은 이 책에서 그 학술적 성찰을 바탕으로 사유의 지평을 넓혀 나간다. 특히 인간의 정신이 기억을 데이터화해 디지털 세계로 옮기거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까지 사라질 수 있는지 질문한다.

책은 부처님이 인간 괴로움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의 길을 제시한 '사성제(四聖諦)'를 통찰의 틀로 삼는다. 고집멸도(苦集滅道)의 가르침을 통해 첨단 기술이 만들어낼 새로운 삶의 조건을 살피고, 기술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성찰한다.

1부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을 바로 보라'에서는 AI시대의 새로운 고통의 양상을 직시한다. 인간의 근원적 고통인 생로병사를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기술이 새로운 형태의 고통과 '디지털 갈애'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지를 살핀다.

2부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파헤친다. 기술을 통해 영생과 전능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욕망이 다름 아닌 갈애의 또 다른 모습임을 짚는다. 또 수명 연장과 기술적 불멸이 인간의 행복과 양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존재에 대한 집착을 극대화해 더 큰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탐구한다. 이를 통해 괴로움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훈습된 인식'에 있음을 밝힌다.

3부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는가'에서는 기술이 약속하는 해방이 불교가 말하는 궁극의 평화, 즉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술적 탈신체가 지향하는 불멸과 불교의 열반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길인지를 명확히 하고, '도덕공학'을 통해 자비심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고찰한다.

4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구체적 길의 문제를 다룬다. 기술이 수행의 길을 대체하거나 건너뛸 수 있게 해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을 이식해 자비와 연민, 인욕과 같은 보살의 덕목을 구현하는 것을 진정한 수행이라 할 수 있는지를 성찰한다.

이러한 물음을 통해 저자는 "깨달음이 뇌의 특정 상태나 정보의 습득이 아닌, 계정혜 삼학의 조화 속에서 몸과 마음으로 체득해 나가는 전인격적 과정"임을 재확인한다. 기술이 수행을 돕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수행 그 자체를 대신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각 장 말미에는 포스트휴먼이 묻고 붓다가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상세계가 현실 고통의 도피처가 될 수 있나' '선정 체험을 디지털 데이터로 복제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에 저자가 '붓다라면 이렇게 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종교적 상상력을 발휘해 답한 것이다.

이러한 문답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을 자신에게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보일 스님은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인사승가대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종책연구위원장과 AI부디즘학술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AI 부디즘〉 〈미술관에 간 스님〉 등이 있다.

여섯 갈래 길에서 깨달음을 묻다



불교 수행의 스펙트럼
김한상 외 지음
올리브그린
1만5000원

시대와 지역 따라 변화한 수행법
각 분야 전문가가 살핀 쟁점·특징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 소외와 정보 격차 등 사회·윤리적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불교 수행은 인간의 괴로움을 어떻게 성찰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불교 수행의 스펙트럼〉은 여섯 명의 학자가 초기불교에서 인도대승불교와 밀교, 중국불교를 거쳐 한국불교에 이르기까지 수행의 주요 쟁점과 특징을 짚은 책이다. 2024년 11월 8일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공동 주최한 '동아시아 불교 수행론'에서 발표된 6편의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김한상 능인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조교수는 수행에서 믿음이 차지하는 자리를 살핀다.

저자는 "해탈의 가르침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적 요소는 붓다가 실제로 깨달음을 실현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강조한다. 수행이 지식의 습득에 머물지 않고 삶을 바꾸는 실천이 되려면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대용 이산불교철학연구소장은 불교인식론을 수행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저자는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 전통에서 후기 인도불교의 라뜨나까라 샨띠에 이르기까지, 논사들이 수행체계를 어떻게 제시하고 발전시켰는지 추적한다. 삼혜의 체계와 요가의 네 단계론 등을 통해 인식에 대한 탐구가 수행과 분리된 지적 작업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방정란 경상국립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의 '밀교 수행'은 인도 후기 밀교의 수행 세계를 소개한다. 중심 문헌은 9세기 전후 인도 밀교의 사상과 실천을 보여주는 〈지혜의 성취〉다. 저자는 이 문헌을 바탕으로 인드라부티가 제시한 수행의 핵심과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한 불이의 지혜, 금강의 지혜를 살핀다.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간화선법-보조 지눌과 태고 보우'에서 보조 지눌과 태고 보우의 수행법을 비교한다. 두 인물의 사상과 행적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뤄졌지만, 간화선법 자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대조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석환 동국대 불교학술원 학술연구교수의 '여래장사상의 수행방법론'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을 갖춘 가능성이 있다는 여래장사상이 불교의 실천과 수행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는다. 특히 여래장사상이 인도불교의 교학적 발전 과정에서 아비달마의 유사상과 중관의 공사상을 통합하고 극복하려는 흐름 속에서 형성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초기 경전에서 대승 경전으로 이어지는 사상적 맥락을 살핀 뒤, 여래장삼부경과 〈구경일승보성론〉을 중심으로 여래장의 개념과 실천적 의미를 검토한다.

강대현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진언을 구성하는 범자 실담장의 음운이 어떻게 수행의 대상으로 변화했는지 추적한다. 한국불교에서 전승되는 42자문과 문수보살 오자진언 '아라파차나'를 비롯해 〈삼국유사〉와 〈조상경〉 등에 나타난 사례를 검토한다.

문헌과 사상에 대한 학술적 검토가 중심인 만큼 불교학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에게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각 수행법의 역사적 맥락과 사상적 근거를 함께 살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수령 기자

천년의 믿음을 등에 진 오래된 신령
거북



노승대 지음
304쪽 | 올컬러
28,000원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을 뿐,
전국의 팔도의 길지와 기도 터엔
언제나 **거북**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답사가가 찾아낸 우리 문화의 숨은 '찐' 주인공

향일암은 왜 거북의 등허리에 자리 잡았을까?
구지봉의 거북은 어쩌다 목이 끊어졌고,
불영사의 거북은 어떻게 화재를 막은 걸까?



눈길 닿는 풍경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는 이야기까지,
만 가지 형상으로 우리 땅·우리 문화 곳곳에 자리한
오래된 신령을 찾아 나서다!





노승대 | 1975년 입산해 광덕 스님을 은사로 모셨으며, 10년 뒤 하산했으나 그 길에서 찾았던 '우리 문화'에 대한 열정은 내려놓지 않았다. 40여 년간 전국의 유적지를 직접 마주한 저자는 우리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공부하는 것을 금생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길 위에 있다.

"무심코 지나친 곳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베테랑 답사가 노승대 작가와 함께하는 우리 땅 구석구석 '보물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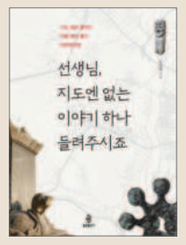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512쪽 | 28,000원



사찰 속 숨은 조연들
456쪽 | 30,000원



사찰에 가면 문득 보이는 것들
432쪽 | 30,000원



선생님, 지도엔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
520쪽 | 32,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파격의 언어로 깨우치는 무애의 지혜



유마경 강설
성본 스님 역해·강설
민족사
4만8000원

오랜 연구·강의 경험 바탕으로
대승불교 사상과 수행론 조명
역설·파격 속 보살행의 참의미
'대승경전과 공의 실천'도 주목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유마경 강설〉을 펴낸 한국선문화연구원장 성본 스님. 현대불교 자료사진

"보살은 어떻게 수행해야 불도(佛道)를 깨달아 통달할 수 있습니까?"

"만약 보살이 일반의 상식을 초월한 비도행(非道行)을 실천하면 불도를 깨달아 통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방법을 묻는 문수보살의 질문에 유마힐 거사는 "비도를 행하는 것이 불도를 통달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이어 "오무간(五無間)을 행하되 성남과 해침의 마음이 없으며", "계율을 범하는 모습을 보이되 청정한 계율에 안주하고 작은 죄조차 크게 두려워한다"고 설한다.

오무간죄는 부모를 살해하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며,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등 불교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꼽히는 다섯 가지 악행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도(非道)를 행하는 것이 불도를 통달하는 길이라는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

한국선문화연구원장 성본 스님은 이를 "보살은 탐욕의 세계에 들어가면서도 탐욕에 물들지 않고, 번뇌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청정하며, 중생이 살아가는 세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면서도 그 세속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어디든 들어가되,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보살의 무애(無礙)와 방편을 극단적인 역설의 언어로 드러냈다는 설명이다.

민족사가 펴낸 '경전 강의 시리즈' 네 번째 책 〈유마경 강설〉은 성본 스님이 〈유마경〉의 원문을 풀고 그 속에 담긴 사상과 수행론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강설서다.

〈유마경〉은 재가불자인 유마힐(Vimalakirti) 거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기존의 출가 중심의 부파불교를 비판하고 대승불교의 참뜻을 밝히는 경전이다. 출가와 재가, 세간과 출세간, 번뇌와 깨달음이라는 이분법적 경계를 허문 파격성 때문에 진의를 오해하기 쉬운 경전이기도 하다.

선불교 역시 선악과 성인·범부, 번뇌와 보리라는 고정된 분별을 넘어 어디에도 걸림 없는 무애의 경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이 '깨달은 사람은 선악이나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해되면 막행막식(莫行莫食)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질될 수 있다.

성본 스님은 이 같은 오해를 경계하며 가르침의 본뜻을 짚는다. 핵심은 파계가 아니라 비도에 들어가면서도 비도에 물들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관념과 분별을 깨뜨리는 데 탁월한 경전이지만, 그만큼 정확한 이해와 해설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성본 스님은 책에서 오랜 불교학 연구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마경〉 원문을 면밀하게 살피고 각 품의 구성과 사상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특히 공(空), 불이(不二), 중도(中道), 보살행(菩薩行) 등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 각 경문에서 어떤 의미로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다.

특유의 역설과 파격을 선의 입장에서 함께 조명해 문자에 얽매이면 놓치기 쉬운 가르침의 본뜻을 드러낸 점도 특징이다.

책 말미에 수록한 '대승경전과 공(空)의 실천'도 눈여겨볼 만하다. 성본 스님은 이 글에서 대승경전이 말하는 공이 무엇이며, 공의 지혜가 실제 수행과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살핀다.

마음을 쉬는 영어 법구경



담마빠다
수자토 영역
홍은혜 옮김
바다와 조약돌
1만9800원

초기 경전 보급하는 수자토 스님
영어와 우리말로 가르침 본뜻 전해

"진실하고 진리에 따라 살며 남을 해치지 않고 절제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이. 늘 깨어 마음의 때가 없는 이를 진정한 어른이라 부른다."

〈법구경〉은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익숙한 경전이다. 짧은 게송으로 욕망과 집착을 돌아보게 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이끈다.

〈담마빠다〉는 초기불교 경전의 번역과 보급에 힘써 온 호주 출신 수자토 스님의 〈법구경〉 영어 번역을 바탕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친근한 우리말로 풀어낸 책이다.

특히 영어와 우리말을 나란히 배치해 두 언어로 가르침을 음미하고, 문장마다 담긴 의미를 천천히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원문의 뜻과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충실히 살리면서도 독자가 자신의 일상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었다. 주석 역시 복잡한 교리 설명에 치중하기보다 게송이 설해진 배경을 이야기처럼 풀어내고 마음챙김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수자토 스님은 2005년 누구나 초기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수타센트럴(SuttaCentral)을 공동 설립했다. 2015년에는 빠알리 경전을 영어로 옮기기 위해 대만 치메이섬에서 3년간 번역에 매진했다. 완성된 번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경전을 누구나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짧은 게송 한 편을 천천히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여수령 기자

"경전 공부 넘어 수행으로"



사십이장경 강설
영화 스님 강설
상욱·현안 스님 옮김
위앙북스
2만2000원



10월 27일 서울 보화선원에서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참석한 영화 스님.

영화 스님의 영문 강설집 번역
"AI시대에도 중요한 건 선한 마음"

"불교는 책으로 배우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로 수행하고, 그 지혜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베트남 출신으로 미국 위앙종을 이끄는 영화 스님이 〈사십이장경〉을 통해 불교의 지식과 수행이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삶'의 길을 제시한다.

〈사십이장경 강설〉은 영화 스님이 2007년 미국에서 설한 법문을 바탕으로 2010년 출간된 영문 강설집을 상욱 스님과 현안 스님이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초기 불교 경전 가운데 하나인 〈사십이장경〉을 대승 수행의 관점에서 풀어내며, 현대인의 삶과 수행에 실질적으로 연결해 준다.

〈사십이장경〉은 마흔두 개의 장에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를 간결하게 담고 있다. 각 장이 독립적으로 구성돼 있어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 읽기에도 좋고, 차례로 읽으며 불교 수행의 방향을 점검하기에도 유용하다.

10월 27일 서울 보화선원에서 열린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영화 스님은 〈사십이장경〉이 "대승의 씨앗을 심는 것을 돕는 경전"이라고 소개했다. 가르침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수행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열며, 그 지혜로 타인을 돕는 길을 일러주기 때문이다.

영화 스님의 삶 역시 이러한 가르침과 궤를 같이한다. 베트남에서 전쟁의 참상을 가까이서 경험한 스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미국에 건너가 경영학을 공부했다. 기업에서 일하며 성공한 경영인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더 많은 돈과 권력, 명예를 얻는 삶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변화의 계기는 자선 활동이었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기관을 후원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처음 경험했다. 스님은 당시를 회고하며 "이전에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지만, 비로소 나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 위앙종의 선화상인을 만나 명상을 배우고 출가하면서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

영화 스님은 "부처님은 스스로를 구하는 법을 알려주셨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행으로 얻은 지혜를 다른 존재들과 나누고,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대승의 참된 길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수행관은 한국불교를 향한 제언으로 이어졌다. 영화 스님은 한국불교가 뛰어난 스승과 오랜 수행 전통을 지니고 있지만, 젊은 세대에게 불교를 전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스님은 "젊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와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불교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불교를 찾는 이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AI는 결코 인간의 불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실직 등 조정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도 있겠지만, 결국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선한 방향을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AI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수령 기자

걷는 순례에서
읽는 순례로

인도·네팔 5,200km의 여정
산치·아잔타에 새겨진 자타카의 세계

공직을 내려놓고 출가한 선객,
성지 순례와 본생담을 세 권의 기록으로 잇다
『인도 네팔 순례기』×『자타카로 읽는 불교』 1·2



『인도 네팔 순례기』 38,000원
『자타카로 읽는 불교 1』 23,000원
『자타카로 읽는 불교 2』 27,000원

카카오톡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각전 스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정치철학 전공)을 졸업하고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했다. 출가 후 범어사 강원을 졸업하고 여러 제방 선원과 미얀마 쉐우민 국제명상센터에서 수행했으며 대장경 천년축전 해인사 준비위원과 『해인』지 편집장을 지냈다. 법보신문과 월간 불교문화에 본생담과 부처님 성지순례를 연재했으며, 저서로 『인도 네팔 순례기』와 『자타카로 읽는 불교 1·2』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자신과 이웃 돌보는 수행의 시간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⑩ 출가자들의 식사 – 탁발

計功多少量彼來處. 忖己德行全缺應供.
防心離過貪等爲宗 正思良藥爲療形枯.
爲成道業應受此食.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 〈석문의범〉 오관게(五觀偈) –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음식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바탕이다. 한국불교에서 스님들의 식사법은 발우공양(鉢盂供養)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발우공양과 붓다 당시의 공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오늘날에는 사찰에서 마련한 음식을 각자의 발우에 먹을 만큼 덜어 먹는 반면, 붓다 당시에는 출가자가 재가자들이 사는 마을로 나가 음식을 받아 오는 탁발(托鉢)이 식생활의 바탕을 이루었다.

탁발은 주로 오전에 이루어졌다. 출가자는 오후에 음식을 먹지 않는 오후불식(午後不食)의 원칙에 따라 정오 이전에 공양을 마쳐야 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음식을 탁발 받아 처소로 돌아오는 도중 식사 시간이 임박하면, 반드시 사원이나 자신의 처소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장소에서 공양할 수 있었다. 이처럼 탁발은 음식을 구하는 행위를 넘어 출가자와 재가자가 서로를 지탱하는 접점이었다.

탁발을 중심으로 생활했으므로 음식을 저장하거나 직접 조리하는 일에도 제한이 있었다. 재가자가 마련한 음식을 받아 그날의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었기에, 사원이나 개인 처소에 음식을 쌓아 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리해 먹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출가자 자신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마음대로 마련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식생활은 음식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재가자의 보시에 의지해 수행하는 삶과 맞닿아 있었다.

탁발 외에 재가자의 초청을 받아 공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청식(請食), 곧 초청에 따른 공양이라 한다. 재가자가 자신의 집으로 출가자를 초청해 음식을 대접하는 한편, 음식을 마련해 승원으로 찾아와 공양을 올리기도 했다. 출가자는 이러한 보시에 가르침을 전하며 재가자와 관계를 맺었다. 승원에 머물며 생활하는 출가자에게 재가자의 초청과 공양은 탁발과 더불어 식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었다. 다만 음식에 관한 규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외 없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율장에는 기근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음식의 보관과 조리에 관한 제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한 사례도 전한다. 오늘날에는 북방불교권의 많은 사찰이 음식을 직접 조리해 공양하는 반면, 남방불교권에는 탁발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공양의 구체적인 모습은 지역과 시대, 수행 공동체의 여건에 따라 달라져 왔다.

붓다 당시 출가자의 탁발 중심 식생활
삼정육 · 율장서 금한 고기 먹어선 안 돼
여식법, 음식 절제와 낭비 방지의 의미
공양, 수고 감사와 수행 · 성찰의 계기 돼

불교에서 공양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육식 문제다. 붓다 당시에는 탁발로 받은 음식에 고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가자에게 공양하기 위해 일부러 동물을 죽인 경우에는 그 고기를 받아먹어서는 안 되었다. 보시를 받는 일이 살생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된 기준이 삼정육(三淨肉)이다. 자신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을 보지 않았고, 그렇게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았으며, 자신을 위해 죽인 것이라는 의심도 없는 고기를 말한다. 핵심은 고기의 종류에 앞서 그것이 출가자를 위해 특별히 살생해 마련된 것인지를 살피는 데 있다. 이 기준은 탁발뿐 아니라 재가자가 마련해 올리는 공양을 이해할 때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율장에는 삼정육의 조건과 별개로 먹지 못하도록 정한 고기도 나온다. 빨리(Pāli) 율장에서는 사람·코끼리·말·개·뱀·사자·호랑이·표범·곰·하이에나의 고기를 금한다. 따라서 육식이 허용됐다는 말은 아무 고기나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당시의 공양 문화를 이해하려면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의 범위와 그것을 허용하거나 금지한 구체적인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공양을 마친 뒤 남은 음식의 처리에도 규정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조리된 음식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먹는 일이 흔하지만, 붓다 당시 출가자의 식생활에서는 일반 음식의 보관과 섭취에 엄격한 제한이 따랐다. 보시받은 음식을 다음 날까지 저장해 다시 먹는 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 음식과 약으로 허용된 것 등은 보관과 섭취의 기준이 달랐으므로, 모든 것을 똑같이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를 단순히 남은 음식은 모두 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도 곤란하다. 음식을 다음 날까지 보관하는 문제와 이미 공양을 마친 뒤 같은 날 다시 먹는 문제는 서로 구분해서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yo pana bhikkhu bhuttāvī pavārito anatirittaṃ khādaniyaṃ vā bhojaniyaṃ vā khādeyya vā bhuñjeyya vā, pācittiyan ti.

若比丘 足食竟 或時受請 不作餘食法而食者 波逸提.

비구가 식사하면서 더 권하는 음식을 사양하고 공양을 마친 뒤,
여식으로 인정되지 않은 음식을 다시 먹으면 바일제를 범한다.

– 바일제 35–

이 조항과 관련해 등장하는 것이 여식법(餘食法), 또는 잔식법(殘食法)이다. 여식법은 공양을 마친 출가자는 남은 음식을 버려야 하는데, 다른 출가자에게 주기 위해 자신은 식사를 마쳤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식이다. 여식법을 마친 음식은 아직 공양을 하지 못한 다른 출가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식법을 자신이 식사를 마쳤음을 알리거나 남은 음식을 다른 출가자에게 나누어 주는 의식으로만 설명하면 규정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공양을 마친 뒤의 추가 섭취를 절제하면서도 음식을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양을 올린 이의 정성을 존중하는 뜻 또한 그 배경에 놓여 있다. 다만 여식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정오 이후에 먹거나 다음 날까지 보관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식법과 오후불식, 음식의 보관에 관한 규정은 각각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날씨로 인해 변질된 음식을 먹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염려한 까닭이기도 하다.

이처럼 음식에 관한 계율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음식을 얻는 과정에서 살생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필요한 만큼 먹고 있는지, 음식에 대한 욕심이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한다. 보시자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생활하는 이들을 배려하는 태도도 그 안에 담겨 있다. 규정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살피는 일과 더불어, 그 규정이 수행자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글머리에 소개한 오관게에는 이러한 공양의 의미가 담겨 있다. 먼저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들인 수많은 이들의 수고를 헤아린다. 한 끼의 음식에는 재료를 기르고 거두는 이, 운반하는 이, 조리하고 공양을 마련하는 이의 정성이 함께 담겨 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성찰의 계기가 된다. 다음으로 자신의 덕행을 돌아보며 이 공양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핀다.

이는 스스로를 탓하기 위한 물음이 아니라, 보시에 걸맞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마음이다. 또한 음식을 대하면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한다. 좋아하는 맛에 집착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에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다. 오관게는 나아가 음식을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고, 도업(道業)을 이루기 위해 공양을 받겠다고 다짐하게 한다. 음식을 먹는 목적을 순간적인 만족에만 두지 않고, 몸을 돌보며 수행을 이어 가는 데 두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무엇을 먹느냐는 질문에 더해 어떻게, 무엇을 위해 먹느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건넨다.

오늘날 육식과 채식은 종교를 넘어 많은 사람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가 됐다. 각자의 선택을 돌아보는 일과 더불어,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먹고 음식을 함부로 남기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다. 탁발과 오후불식, 오관게의 가르침을 오늘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한 끼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습관부터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음식이 마련되기까지의 수고에 감사하고, 몸에 필요한 양을 헤아리며, 먹는 즐거움 속에서도 욕심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일상의 식사 또한 자신과 이웃을 돌보는 수행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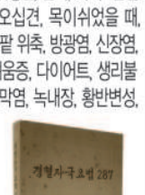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폐천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쉬었을 때, 전립선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삼지, 중지, 하지) 등..

287개 병증 목차 수록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 감초, 산사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 [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우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소리쟁이잎,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헛개환 [지구자(枳椇子)]



재료명: 헛개열매, 오갈피뿌리, 적화수오뿌리, 산수유, 구기자, 오미자, 국화, 표고버섯, 뽕나무뿌리, 녹차, 두충, 대추, 감초, 칡, 산사열매, 맥아

간 해독으로 활력을
찾습니다.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대작에서 굿즈까지…불교미술의 내일을 묻다

2026 중국 샤먼국제불교용품전람회 · 불교공예시장 참관기

현대불교신문과 도반HC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박람회인 '중국 샤먼국제불교용품전람회(Xiamen International Buddhist Items & Crafts Fair)'와 중국의 불교 공예 제작 현장을 둘러보는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람회를 통해 세계 불교용품의 흐름을 읽고, 사찰 장엄부터 불교 소품까지 불교 공예에 대한 안목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불상조각가 서칠교 작가의 참관기를 싣는다. 〈편집자 주〉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린 샤먼국제불교용품전람회에는 120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 사진은 박람회 부스에서 불상을 살펴보는 관람객.

불상을 만드는 사람은 낯선 곳에서도 부처님의 얼굴 앞에 오래 머문다. 눈매와 입가의 미소를 살피고,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옷 주름과 손끝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작업을 돌아보게 된다. 최근 중국 샤먼국제불교용품전람회를 찾은 시간도 그러했다. 다양한 불교미술을 만나는 즐거움 속에서 앞으로 무엇을 만들고, 누구와 만나야 할지를 생각했다.

샤먼국제불교용품전람회는 봄과 가을 두 차례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박람회다. 지난 10월 17일 개막한 전람회에는 120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 전시장에는 불상과 불구, 향과 조명, 사찰 장엄물과 생활 문화상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펼쳐져 있었다. 오랫동안 불상을 조성해 온 나에게도 불교문화가 이처럼 폭넓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롭게 다가왔다.

전람회를 관람한 후 중국 현지의 돌조각공장과 목조각공장, 주조공장도 방문했다. 먼저 놀란 것은 작업 공간의 규모였다. 대형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할 수 있는 넓은 작업장과 그 안에 자리한 조각들은 우리와는 다른 제작 환경을 보여줬다. 거대한 돌과 나무, 금속이 사람의 손을 거쳐 하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술이 필요했을까. 작품의 규모에 감탄하면서도 이를 가능하게 한 제작 기반과 축적된 경험을 생각하게 됐다.

현장에서 느낀 것은 감탄만이 아니었다. 넓은 작업장에 비해 작업 현장은 예상보다 한산했다. 거대한 작품들 사이에 감도는 적막이 마음에 남았다. 짧은 방문만으로 현지의 사정을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대형 불상 조성과 전각 장엄이 불교미술 시장의 중심을 지탱할 수 있을지 질문하게 됐다.


전람회에서는 불상과 불구뿐 아니라 조명, 굿즈 등 다양한 불교용품이 선보였다.


참가단은 중국 현지의 돌조각공장과 목조각공장 등을 방문해 불교 공예에 대한 안목을 넓혔다.

대작불사는 많은 이의 발원과 정성이 모여 이루어진다. 큰 불상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공동체가 함께 조성했다는 의미는 여전히 소중하다. 나 역시 그 가치를 믿으며 작업해 왔다. 다만 불교미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웅장한 규모의 불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형 작품을 제작하는 역량과 더불어 사람들의 달라진 일상에 다가갈 새로운 길도 모색해야 한다.

법당을 넘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불교굿즈에 대한 관심이 떠올랐다. 젊은 사람들이 불교박람회를 찾아 작은 소품을 고르고, 불교의 말과 이미지를 담은 물건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습은 반가운 변화다. 반가사유상의 작은 형상을 책상에 두거나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적힌 물건을 곁에 놓는 일에는 아름다움과 위안을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불교미술을 만나는 공간이 법당을 넘어 생활의 여러 장면으로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샤먼과 현지 공장에서 만난 거대한 작품들, 한국에서 사랑받는 작은 문화상품들은 서로 다른 크기로 오늘의 불교미술에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어떤 모습의 부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어떤 물건을 곁에 두고, 어떤 순간에 마음의 쉼을 얻고자 하는가. 불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형태의 완성도만큼이나 깊이 고민해야 할 질문이다.

물론 작은 상품을 만든다고 해서 새로운 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친근하고 귀여운 표현에도 조형적 질서와 세심한 마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불교미술이 오랫동안 품어 온 사유가 자연스럽게 스며 있어야 한다. 작은 얼굴의 미소 하나, 손의 모양 하나에도 만드는 사람의 이해와 태도가 드러난다. 전통 작가의 경험과 새로운 세대의 감각이 만날 때, 오래 곁에 두고 싶은 물건이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에 머무는 조각

이번 참관은 작업의 크기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크다는 것은 높이와 부피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손바닥만 한 조각도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머물 수 있고, 작은 불상 한 점이 놓인 자리가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살피는 일 역시 불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작업이다.

돌아와 다시 흙을 만지며 넓은 공장 안에 서 있던 큰 불상들을 떠올린다. 대형 작품을 가능하게 한 기술에 대한 감탄과 한산했던 현장에서 마주한 질문이 함께 남아 있다. 오랜 전통을 손끝에 간직하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이번 여정이 내 작업에 남긴 과제다.

이번 참관이 개인의 견문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사찰 불사와 불교 문화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스님들과 불교미술 관계자들에게도 새로운 시야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현장을 직접 살피고 다양한 제작·유통 환경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한국불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불교조각을 업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익숙한 작업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 준 이번 여정은 큰 불상 앞에서 작은 일상의 가치를 다시 발견한 시간이었다.



서칠교 불상조각가



전람회에 선보인 불상들.


전람회에는 수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조각공장을 둘러보는 참가단.


산업시찰에는 3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 개요

주 최 | 현대불교신문 · 도반HC
주 관 | 아제여행사
일 정 | 2026년 10월 17~21일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600호 | 14 | 전면광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품은
한때의 악한 생각이 훗날
많은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매의 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대구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외
- 매가 : 7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상남도
- 부지 : 10000평
- 법당 : 50평 외, 요사:60평 외
- 버스진입주차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청하면
- 면적 : 1500평
- 대웅전, 요사채, 공양간 100평 (건축 조성 7년 되었음)
- 법구, 냉장고, 세탁기, 집기류 일체 보시합니다.
- 바다 인접, 교통편리, 주차장 500평
- 가액 : 10억원

스님 직접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03번지
- 대지 700평, 사용할 수 있는 밭 500평
- 건물 : 9동, 향토방 2동
- 차량진입, 주차장, 남향평풍처럼싸여 있고, 큰 비가와도 안전한 도량
- 자두, 매실, 감나무, 뽕나무, 돌배, 두릅, 머위, 고사리 등등 다용도 사용 가능
- 가액 : 5억원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산자락
- 규모 : 대지 600평/건평 88평(6개동)/요사채, 법당, 미륵전, 비루전, 선다원, 산신각
- 법당 : 법구일체. (냉장고, 세탁기) 등은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6억원

010-6325-6700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찰(급)안내

- 땅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4억 3천만원(절충 가능)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원주
- 부지 : 총 2460평(대지152평, 전2308평, 계획관리지역)
- 즉시 법회 가능(국도에서 700m, 산속)
- 차량진입 양호, 건물3동, 삼태기 모양(자연장 적지)
- 드롭, 취나물, 곤드레, 곰취 등 식재
- 접근성 최고 : 대형병원 10분 IC, KTX역 10분거리, 대형마트 10분거리
- 가액 : 평당 27만원(협의 가능, 스님 건강 문제로)

010-3231-4499
010-4580-84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고성(창원 근접)
- 부지 : 359평(종교부지, 대지, 전)
- 건물 : 대웅전 10평, 삼성각, 종각, 요사채
- 냉장고, 세탁기 몸만오시면 수행가능함
- 가액 : 1억 5천만원

010-9227-438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5억6천

010-3868-8219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고성
- 부 지 : 총 633평
  (종교부지 300평, 주차장 306.6평, 전 26.6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 액 : 현금 1억 9천만원 (대출 2억 포함)

원해 스님 010-6766-698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 대지 : 367평, 건물연면적 160.36㎡
- 법당, 주지스님 처소
- 춘장대IC 15분 거리
- 바다가 보이는 전망
- 가액 : 1억9천만원(협의가능)

010-5046-5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 부지 : 총 84평
- 집기 일체 인수인계
- 즉시법회 가능합니다
- 가액 : 2억5천만원(인수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583-132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534-6
- 산속에 있는 절 입구에서 150m 들어갑니다
- (본인) 소유 법당, 사무실은 컨테이너 4×9 창고 겸 해우소, 컨테이너 3×6 (별도)요사채 30평-방 3칸, 거실, 주방, 화장실
-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0만 원
- 주불, 석가모니불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불, 산신탱, 소불 지장관음
- 108불 법당, 요사채, 집기 모두 일체 드림
- 에어컨 4대, 김치냉장고 2대, 냉장고 2대 모두 드림
- 가격은 상담 후 조정, 방범카메라 4대
- 대전 · 당진 간 서해고속도로 면천 IC 500m
- 답사 전에는 전화 통화 후 방문 바랍니다.

010-7519-5657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내원사 부근
- 규 모 : 총 588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 시 설 : 시수도, 지하암반수
- 대 출 : 3억원
- 가 액 : 8억 5천만원

010-5309-9117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시
- 부지 : 405평
- 대웅전 : 20평, 외5포, 내7포 일주문 주3포, 창건 50년
- 가액 : 13억

010-4600-708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칠포해수욕장 부근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정부 고시가 : 4억 7800만원
- 가액 : 3억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보증금 2000만원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 찰 안 내

지리산 함양 산 매매

- 전망 좋고 기도 수행하기에 적합함
- 산 2300평
- 스님, 보살 환영

010-7305-5050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 총 300평
  법당 20평, 아미타삼존불
  스님 친견방 5평, 건평 30평
  방거실 3칸, 대중공양간 10평
  화장실 3개, 산신각, 용왕당
  창고 20평/잡기포함/주차장
- 가액 : 1억 8천 *부동산 사절*

010-7506-8604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49재 · 천도재 기제사 · 구병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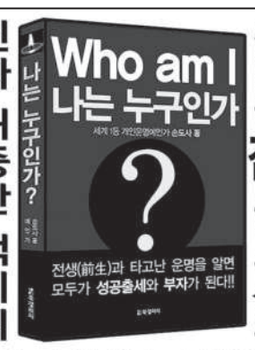
사찰 방문시 무보시(무료)로 지내드립니다.

부산 서구 묘법사

010-2168-2800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진짜 귀중한 책이니 꼭 읽어봐주세요



010-5105-5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비구니 기도스님 모심

- 서울 도심포교원에서 정성과 사명감을 가진 분이라면 나이 불문
- 초보자도 가능함
- 경력자 우대

02-338-2158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범음 범패 교육도량

통영 안정사의 전통소리
바라춤, 작법무,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 행사
정성껏 해드립니다
사찰 인수자 연락 요망(전월세 가능)

부산 온천장 미타사
010-3653-5151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강원도 철원

010-2284-6203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부처님이 대한민국 대구에 나투셨습니다

부처님진신사리 친견대법회

대구 엑스코 성료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부처님 사리친견 및
마정수기 대법석이
봉행되었습니다.

주최	일시	장소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2026년 10월 24일(금)	대구 엑스코 (EXCO)











"우리의 삶은 눈을 뜨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길을 찾아 봅니다.
그 길은 만 생명이 가야 할 구원의 길입니다.
12인연의 소중함의 명쾌한 해답을 찾아 고행의 길을 가고 있는
보람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해 봅니다.

부처님은 80평생을 맨발의 한걸음 한걸음 옮기면서
고통중생과 더불어 부처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을 느끼며
자비의 등불이 낮은 데로 흐르게 하신 부처님의 뜻을 이어가고자
오늘도 포교 현장에서 땀 흘리며 뛰어봅니다.

25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미얀마 연방 승가회 회장 우 꾸마라 사야도,
전 종정 바단타 소비타 사야도, 보디 따따옹 우 나라다 사야도께서
하사해 주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미얀마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미얀마 문화원 및 국제 붓다 사리 박물관을
개원하였습니다.

진신사리는 8개국에 분배되어 근본 팔탑으로 봉안되었으며,
이후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지역에 다시 봉안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회는 세계인들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마정수기를 병행하여, 지구촌이 자비와 평화로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세계불교법왕청중앙정부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大韓民國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대표전화
02-733-5665

‘왕가’ 앞세운 박물관에 모인 불교유산들

〈王家〉

성보유랑 聖寶流浪

⑧ 이왕가박물관과 반출 성보유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창경궁 이왕가박물관 사진엽서. 20세기 촬영된 것으로 맨 앞에 ‘조선명소’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조선의 왕궁이 일제 식민문화정책에 따라 근대 박물관으로 변화하는 순간이다. 박물관은 각지에서 수집된 불상, 불화 등 성보유산과 서화, 도자기, 민속유산 등으로 채워졌다. 사진 제공=국립고궁박물관

1909년 11월 1일, 창경궁 안에 자리한 박물관이 일반에 공개됐다. 그해 9월 동물원·식물원과 함께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이었다. 대한제국 때에는 ‘제실박물관’으로 불렸지만, 1910년 강제병합 이후 ‘이왕가(李王家)박물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황실을 뜻하는 ‘제실’은 일본 지배 아래 놓인 ‘이왕가’가 됐다. 궁궐 안 박물관으로 향한 유물 중에는 사찰을 떠난 불상과 범종도 있었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이후 경복궁에 문을 연 조선총독부박물관보다 먼저 설립된 별개의 기관이다.

식민문화정책 중심 ‘이왕가박물관’

박물관 설립 실무는 궁내부 차관 고미야 미호마쓰 등 일본인 관료들이 주도했다. 순종의 무료함을 달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지만, 철저하게 식민지 정책 하에 설립·운영이 이뤄졌다.

미술사학자 목수현은 논문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의 식민지적 성격’에서 박물관 설립을 “‘왕가’를 앞세운 일제 통감부·총독부의 식민문화정책의 전개”로 규정했다. 왕조의 중심 공간을 관람과 유흥의 장소로 바꾸고,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했다는 성과를 보여주는 관광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1911년에는 박물관과 동·식물원을 포함한 창경궁 일원이 창경원으로 불리게 됐다. 목수현은 궁궐의 유원지화가 지닌 의미에 대해 “궁궐이 지니는 정치적 권위와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근대 박물관의 출발에는 이처럼 궁궐 공간의 변화와 식민지 문화정책이 함께 놓여 있었다.

소장품은 시장에서 사들인 유물로 채워졌다. 이승혜 리움미술관 큐레이터의 논문 ‘이왕가박물관 불상 컬렉션의 형성과 의미’에 따르면 1908년부터 본격적인 수집이 이뤄졌고, 1912년 첫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이 간행될 무렵에는 소장품이 1만2230점에 달했다. 고려청자와 금속유물, 서화, 불상 등이 주요 구매 대상이었다. 1938년 박물관은 덕수궁의 이왕가미술관에 통합됐다. 소장품은 해방 이후에도 덕수궁에 남았다가 1969년 국립박물관에 통합됐다.

불상, 이왕가박물관 대표 소장품

그렇다면 불교유산은 이왕가박물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을까. 실제 불상은 박물관을 대표하는 소장품 가운데 하나였다. 이 큐레이터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검토한 1908~1917년 수집 경향에서 불상이 각 해의 전체 수집 분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2% 내외였다. 그러나 박물관이 대외적으로 내세운 사진첩에서는 불상이 맨 앞에 배치됐다. 1912년 초판과 1918년 재판 모두 제1책의 첫머리를 불상으로 채웠고, 장르별 별권도 1929년 불상부가 회화부·도자기부보다 먼저 나왔다.

도록은 불상을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조형과 양식을 설명했다. 1912년 초판에는 불상 47점과 불감 1점이 수록됐다. 당시 편년으로 삼국시대 11점, 통일신라 23점, 고려 11점, 조선 3점이었다. 이를 통해 예경의 대상이던 불상은 수집·감상의 대상으로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됐다.

이 큐레이터는 “20세기 초 박물관이란 근대적 제도의 도입은 불상이 예경과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수집, 전시, 감상의 대상으로 변화하는 가장 주요한 동인(動因)이었다”고 전제하며 “이왕가박물관은 실질적으로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던 일본인 통치층이 메이지유신 이후 내재화했던 불교와 불상에 관한 관념을 구현한 제도이자 전시 공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더불어 관찬 편찬물들은 “일본이 수립한 미술사의 틀 안에 조선 미술을 위치시키고, 이를 국제사회와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알리는 선전의 도구이자 장이었다”고 봤다.

천안 천흥사명 동종과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은 이 과정을 보여주는 성보들이다. 각 사찰에서 출발해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이 됐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고려 초기 대종의 수난사

국보 ‘천흥사명 동종’은 본래 천안 성거산 천흥사에 있었다. 태고 왕건과의 깊은 인연을 가진 천흥사는 현재는 폐사돼 사지로 남았으며 인근에 천흥사가 새로 복원돼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강호선 성신여대 교수는 ‘물질자료와 문헌자료로 본 천흥사’에서 1407년 자복사 지정 기록과 ‘동국여지승람’의 폐사 기록을 검토해 1481년 이전에는 사찰이 없어졌을 것으로 봤다. 천흥사 동종의 경우 ‘성거산천흥사종명통화이십팔년경술이월일(聖居山天興寺鐘銘統和二十八年庚戌二月日)’이라고 기록돼 있어 1010년(현종 1년)에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천흥사 역시 이 시기를 전후로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폐사 이후 전각은 없어지고, 성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쉬이 옮길 수 없던 당간지주와 5층석탑만이 폐허가 된 절터를 지키게 됐다. 불상과 불화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나 ‘천흥사명 동종’은 남한산성이 축성된 1624년(인조 2년) 이후 남한산성의 종각으로 옮겨져 시각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됐다.

남한산성에서 시각을 알리던 ‘천흥사명 동종’은 근대 시기에 박물관 소장품으로 전락한다. 1912년 이왕가박물관에서 발행한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을 보면, 도판 제63호로 종의 명문과 함께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설에는 “대종은 일찍이 경기도 광주읍내 있었는데 1910년 5년 창경궁으로 옮겼다”고 기록됐다. 이왕가박물관이 1938년 덕수궁으로 이전한 뒤에는 2층 중앙홀에 전시됐다.

예경의 상징에서 소장품으로

보물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이하 하사창동 철불)’은 현존하는 한국 최대(最大) 철불이다. 불신 높이는 281.8㎝이며, 무게는 6.2t에 이르는 위용을 자랑한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옷차림과 항마촉지인, 당당한 상체 등에서 석굴암 본존불의 형식을 계승한 고려 초기 불상으로 평가된다.



국보 ‘성거산 천흥사명 동종’. 고려시대 초기에 조성된 동종은 천흥사 폐사 후 남한산성에서 조종으로 활용되다가 이왕가박물관에 넘겨졌다.

1909년 창경궁서 제실박물관 설립
한일합방 이후 명칭 ‘이왕가’ 변경
불상, 사진첩 처음 장식 ‘중요 위치’
천흥사종, 남한산성서 조종 활용돼
1910년 창경궁 이운, 박물관 수장
하사창동 철불, 日人 850엔에 팔아
지역서 환수 염원…사지 정비 필요



보물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 국내 최대 크기의 철불로 일본인이 소장하다가 850엔에 이왕가박물관에 팔았다.

보물로 지정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하사창동 철불은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이유로 조성·봉안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경기 하남시 하사창동(옛 경기 광주)의 절터에서 출토됐으며, 인근 발굴조사를 통해 목탑의 심초석과 건물지, 기단들이 확인됐다. 또한 목탑지 주변에서 ‘천왕(天王)’, ‘왕사(王寺)’ 명의 기와편이 출토돼 해당 지역이 ‘천왕사지’임을 알 수 있게 됐다.

학계는 하남 천왕사가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 창건된 사찰이며, 고려 왕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에 따르면 태조 왕건은 원종 대사를 천왕사에 주석시켜 하남·광주 지역에서 불법을 펴도록 했다. 다만 천왕사가 언제 어떻게 폐사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 하사창동 철불이 다시 세간에 오르내리는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다.

하남 천왕사지 철불좌상에 대한 기록은 다이쇼 5년(1916) 발간 〈고적조사보고〉와 다이쇼 6년(1917) 발간 〈고적조사보고〉에서 간단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하사창동에 절터가 있었고, 당시에는 동서로 철불이 나란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큰 서쪽 철불은 현재 하사창동 철불을 의미하며, 작은 동쪽 철불의 행방은 묘연하다. 이운 시기를 7~8년 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연구에 따르면 하사창동 철불이 이운된 것은 1911년 이후다. 당시 불상의 소유자였던 타카다 큐고가 1911년 2월 20일 850엔의 대금을 받고 불상을 이왕가박물관에 팔았다는 기록이 남아서다.

당시 불상은 허리 아래가 땅에 묻혀 부식돼 있었고, 얼굴과 귀 등에도 손상이 있었다. 박물관으로 옮겨진 뒤에는 훼손된 부분에 보수가 이뤄졌고 소장번호 ‘덕수 2748번’이 부여됐다. 신앙과 예경의 대상인 성보가 박물관 소장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일제 식민문화정책의 산물인 이왕가박물관의 수집품이 된 하사창동 철불은 현재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자리하고 있다.

두 성보, 지역으로 모시려면…

박물관으로 옮겨진 두 성보를 지역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은 불교계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천흥사명 동종은 천안시를 중심으로 2020년 ‘천흥사명 동종 환수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며 본격적인 환수 운동에 들어갔다. 지역 불교계와 충남도의원, 천안시청, 천안시문화원, 천안박물관 등이 참여해 답사와 모임을 진행하며 환수의 당위성을 알려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활동이 중단됐다

이후 천안시는 ‘고려시대 문화유산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을 통해 천흥사지의 사격을 파악하는 발굴조사를 진행했으며 2024·2025년에는 천안시가 천흥사지 관련 학술대회를 열고 사적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하사창동 철불을 제자리로 모셔야 한다는 환수 의견들이 제기된 것은 2020년 즈음이다. 하남문화재단 등은 2020년 9월 ‘하남의 불교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하남역사박물관에 재현품을 조성·전시했다. 당시 김상호 하남시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남 교산신도시 역사문화지구에 박물관이 제대로 건립되면 하사창동 철불을 다시 모셔오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자체의 움직임에 지역 불교계도 호응했다. 2021년 연등회에서 하남불교사암연합회는 철불을 재현한 불상을 차량에 싣고 제등행렬을 펼쳐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철불 환수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확한 사역(寺域)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천왕사지 발굴조사 등을 통한 복원·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소장품 지역 이관의 조건으로 △출토지 확실 △원위치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관리 △관리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할 것 △전시와 관리의 안전이 담보될 것 △본래 용도와 기능에 맞춰 원형 그대로 이전할 수 있을 것 △과학적 정밀조사 선행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철불의 지역 이관의 첫 단추다.

미술사학자 이숙희는 ‘하남 천왕사지 철불좌상의 출현과 의미’에서 “하남 천왕사 절터와 그 주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돼 천왕사의 창건 시기와 규모, 후원세력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천왕사지 철불의 원래 모습과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두 성보유산의 환지본처 논의에는 지역의 염원과 함께, 사찰을 떠난 경위를 밝히고 돌아갈 자리를 확인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사찰벽화 명작순례

⑳ 양산 통도사 극락보전 반야용선도



양산 통도사 극락보전 반야용선도.

태풍에 하단부 휩쓸려 나간 벽화

100년 이상 된 고색의 반야용선도 벽화는 전국에 걸쳐 다섯 곳에 현존한다. 양산 통도사 극락보전 외벽, 파주 보광사 대웅전 외부 판벽, 제천 신륵사 극락전 외벽, 구미 수다사 명부전 외벽, 그리고 안성 청룡사 대웅전 내벽이다. 서사적 내용 구성은 안성 청룡사 대웅전 반야용선도가 가장 극적이고, 예술적 아름다움은 통도사 극락보전 반야용선도가 백미다. 통도사 반야용선도는 한국산사의 반야용선도를 대표하는 상징적 벽화로 손꼽혀 왔다. 하지만 통도사 반야용선도는 현재 소실의 위기에 처해 있다. 2020년 9월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마이삭에 의해 반야용선도 절반인 하단 부분이 비바람에 쓸려나가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통도사 극락보전의 반야용선도는 세로 228㎝, 가로 288㎝에 이르는 대형벽화다. 벽체의 뼈대로 화면을 절묘하게 구획하고 활용했다. 벽화는 벽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중인방을 기준으로 상하 두 영역으로 구성했다. 위는 반야용선이 중심 소재이고 아래는 거친 물결이 출렁이는 푸른 바다다. 중인방 목재를 배의 몸체, 곧 선체로 절묘하게 활용했다. 끝자락이 살짝 들린 검은 먹선 세 줄로 선체를 간단히 스케치해 낸 안목이 감탄을 자아낸다. 용머리로 선수를 표현하고 용꼬리로 선미를 마감해 반야용선의 골간을 완성했다.

반야용선의 중앙엔 선실을 마련했다. 선실은 청색 사모지붕으로 꾸민 보궁 형식이다. 불교의식 때 불보살을 모셔 오는 가마인 불연(佛輦)과 닮았다. 지붕 중앙엔 홍살문 장식처럼 긴 삼지창을 꽂았고 보궁의 네 모서리 추녀 끝 자락과 처마엔 장식술을 늘어트려 보궁의 의미를 살려냈다.

반야용선에 표현한 보궁은 극락보전과 다름없다. 보궁에는 원래 아미타삼존이 계셔야 한다. 제천 신륵사 반야용선도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반야용선 벽화에선 선실에 아미타삼존을 규범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통도사 극락보전의 반야용선도에선 아미타삼존의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벽화가 그려진 곳은 극락보전의 뒷벽이다. 극락보전에는 아미타삼존을 봉안하고 있다. 반야용선도 벽화의 보궁 뒤편에 바로 아미타삼존이 계신다. 그래서 반야용선의 보궁에 따로 아미타삼존을 애써 그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대신 보궁의 커튼 장막 너머에 여백으로 비워뒀을 뿐이다. 배에 탄 왕생자들이 하나같이 두 손을 합장하고 있는 것도 내영 오신 아미타삼존에 대한 예경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반야용선도 벽화 전국 다섯 곳 현존
피안의 이상향 이르는 '지혜의 뗏목'
바다에 핀 백련화 표현 진귀한 장면
이승서 떠나지 못하는 심사도 담겨

반야용선도 바탕은 아미타불의 본원력

반야용선은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 고집멸도의 배다. 괴로움은 갈애와 집착에서 오고, 그 근본 원인은 무명에 있다. 무명을 밝히는 빛이 반야, 곧 지혜다. 지혜의 길로 안내하는 분이 인로왕보살이고, 지옥과 다름없는 무명의 어둠에 광명을 놓는 분이 지장보살이시다. 인로왕보살은 선수에 앉아 계시고 지장보살은 선미에 서 계신다. '인로왕(引路王)'은 말 그대로 길을 안내하는 으뜸 길잡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선수에 자리한다.

벽화 속 지장보살은 왼손에 육환장을 들고 있고, 오른손엔 밝게 빛나는 흰색 보주를 쥐고 계신다. 보주는 무명의 어둠에 빛을 놓는 지혜의 상징물이다. 반야용선은 본질적으로 '반야', 곧 지혜의 배다. 지혜로써 고해의 바다를 건너 피안의 이상향에 이른다. 반야바라밀의 '지혜의 뗏목'을 회화적으로 완성한 벽화라 할 수 있다. 이 반야용선은 본질적으로 지혜의 감로가 베풀어지는 배다.

그런데 불교에선 말한다. 인간의 몸을 받기는 지극히 어렵다고. 그렇다면 지극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고 지극히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제상선인 구회일처(諸上善人 俱會一處)'라는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는 그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것도 서쪽으로 십만억 국토를 지나야 이를 수 있고, 한번 왕생하면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불퇴전지(不退轉地)다. 작은 선근으로는 도저히 이르기 어렵다. 어쩌면 자력으로는 극락왕생이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쉬운 길이 마련돼 있다. 그것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것이다. 지극한 신심으로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를 염불하면 된다. 극락정토는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건설된 정토다. 극락왕생의 근본적인 힘은 아미타여래의 48대원에 있다. 아미타불이 성불하기 전 법장비구였을 때 세운 48대원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서원이 '미타본원', 또는 '십념왕생원'으로 불리는 제18원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이 저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신심을 내어 아미타불을 다만 열 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한 극락왕생은 타력신앙의 성격을 띤다. 중생구제의 대원과 자비가 바탕을 이룬다. 반야용선 벽화에는 반야(지혜)의 감로와 아미타불의 본원력, 즉 자비가 통일돼 있다. 지혜와 자비는 불교 가르침의 핵심으로 둘은 불이의 관계다. 반야용선은 지혜의 배이고, 자비의 배이다.

26명 왕생자 승선한 쌍돛대 배

이젠 반야용선을 살펴보자. 반야용선은 선수와 선미 두 곳에 돛대를 설치한 쌍돛대 배다. 제천 신륵사 반야용선도나 파주 보광사 반야용선도에도 돛은 등장한다. 둘 다 돛이 하나인 돛단배다. 통도사 반야용선도는 돛이 두 개다. 한국산사 반야용선도 벽화 중에서 유일한 쌍돛대 배다. 쌍돛은 바람을 한껏 품어 휘도록 부풀었다. 돛을 선체와 이은 밧줄까지도 팽팽하다. 용선이 바람을 가르며 속도감 있게 내달리는 듯 선체에 파도가 부서져 하얀 포말들이 날린다. 고해의 바다를 거침없이 내달린다.

쪽빛 바다도 거세게 출렁인다. 출렁이는 물결의 형상이 근육의 섬유질 같기도 하고 길게 꼰 실타래 같기도 하다. 벽체의 중인방 윗선을 바다의 수평선으로 활용한 재치가 돋보인다. 목재의 결도 물결로 활용한 천재적인 안목에는 절로 감탄이 나온다. 바다의 근경에는 하얀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백련화 다섯 송이가 피었다. 아직 덜 핀 꽃봉오리도 있고 활짝 핀 것도 있다. 백련화는 분타리화로서 청정 극락정토의 상징과도 같다. 바다에 연꽃이 피어도 논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화엄경〉에도 향수해 위에 대연화를 중중(重重)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야용선도와 바다에 핀 연꽃의 장면도 통도사 반야용선도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장면이다. 왜 거세게 출렁이는 바다에 백련화가 피었을까? 출렁이는 바다는 아상에 집착한 번뇌의 바다다. 백련화는 번뇌의 불이 꺼진 청정한 마음의 세계다. 불보살의 지혜와 자비의 가피로 번뇌의 바다에서 백련화가 극적으로 핀 것이다.

벽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거세게 일렁이는 바다와 백련화 사이엔 구름 같은 미묘한 경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면에선 희미한 원근법까지 작용하고 있어 20세기 초 무렵에 그린 벽화의 시대성을 추정하게 한다. 그런데 왜 중생은 연꽃을 빌려 연화화생하는가? 청정한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이다. 연꽃이 생명 탄생의 근원인 것도 청정하기 때문이다. 반야용선도 속의 백련화의 묘사는 승선한 왕생자들의 연화화생을 이미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반야용선에는 누가 탔을까? 반야용선에는 모두 28명이 등장한다. 인물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보살: 두 분(인로왕보살, 지장보살) △스님: 8명 △남녀 속인: 18명. 스님은 모두 삭발한 머리에 잿빛 옷차림을 하였고, 속인은 앞칸의 청색 저고리를 차림한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흰 옷차림으로 통일했다. 재미있는 것은 스님임을 특정 짓게 하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잿빛 승복도 그중의 하나이지만 또 하나의 표현은 스님일 경우 얼굴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붉게 칠하여 속인들과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머리를 검게 표현하지 않고 붉게 칠한 인물은 모두 스님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 상투 올린 아버지, 저고리 차림의 어머니, 두루마리 차림에 갓을 쓴 사람, 젊은이 등 성속과 남녀노소 경계 없이 두루 인물군을 표현하고 있다. 간절히 우러르고 있는 사람, 고개 숙인 사람, 눈을 감고 있는 사람,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듯한 사람 등 각인각색의 표정들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모두 일상의 모퉁이에서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얼굴들이다. 벽화 속 26명의 왕생자 중에서 한 사람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모두 앞을 보는데 오직 이분만 뒤돌아보고 있다. 얼굴엔 미련과 안타까움, 애절함이 가득하다. 다른 분의 눈은 가로획으로 표현해서 감정이 보이지 않게 표현했지만 이분의 눈은 동그랗게 그려 감정을 읽을 수 있게 했다. 눈에 슬픔이 그렁그렁 남아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이승을 떠나려 하니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심사가 그대로 담겼다.

디테일에서도 사찰벽화 명작의 면모를 갖췄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노재학 작가

불교계 최고 통일 의식법요집



다비법요집 (1,445쪽) ····· 150,000원
천도법요집 (853쪽) ····· 100,000원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 100,000원

■ 특징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 내용
- 통용불공법요집, 다비법요집, 천도법요집은 흩어져 있는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통일 불교의식집이다. 특히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한 전통 의식을 재정리하여 불자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되었다.

보급처 | 사) 대한불교교종 출판사 TEL : 031-297-8414

인생의 성공 실패, 고민 해결
'사주와 육효 18문답' 속에
서경철학관 | 약 50년의 연구 임상체험 담긴, 정확도 70% 이상의 명쾌한 인생 지침서



철학원, 영험하신 무속인, 혜안이 높으신 스님들조차 신도나 문복자가 찾아와 한 해의 길월과 흉월 그리고 한 달의 길일과 흉일을 물어보면 말문이 막히고 답변을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사주팔자로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을 명쾌하게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역(육효)의 용신생극으로 풀어내는 인생 해답
재물운 | 사업운 | 매매운 | 승진 | 합격
궁합 | 결혼운 | 택일 | 이사 | 개업
한 해의 길월·흉월 | 한 달의 길일·흉일

◆ 강의 주요 내용
1. 1년 완강 / 사주와 (주역)육효 강의
2. 주 2회, 하루 2시간 강의 / 수강료 : 1개월 50만원
3. 개강일 : 12월 26일 (월요일) 13:00
4. 강의교재는 「사주와 육효 18문답」으로 진행 (책에 기재되지 않은 주요 핵심 요점도 함께 강의)

◆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사주와 육효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
- 인생의 고민을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하고 싶은 분
- 재물, 사업, 취업, 결혼, 이사, 개업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얻고 싶은 분

2026 특별판매!
5만 5000원
택배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3341-4867 | 수강료 1개월 50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442802-01-177578 (김성민) | 네이버 검색 '서경철학관'

귀신병 확실 치유

- 빙의 퇴마
- 최면 치유
- 기공 치유
- 염력 치유
- 자극요법 치유

- 우울증
- 불면증
- 약물중독
- 공황장애

*기술전수 합니다. *중매상담(무료)

종교법인 약 천 사

약손 현오 합장

예약 직통 010-7170-5508

충남 아산시 배방읍 구령서길 143-10

사라진 황금 깃털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⑫ 지족(知足) 상실 : '황금 거위의 깃털'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지난여름 네팔을 강타한 홍수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히말라야 상층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네팔과 티베트 주변 마을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됐다. 이번 참사가 마치 거대한 쓰나미와 같다고 해서 어떤 이들은 '빙하 쓰나미'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인간이 자행해 온 환경 파괴의 업보를 받고 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이 기후 변화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구가 더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사태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지구가 위험하다는 말이 신문 속 기사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이라는 사실이다.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소비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피해는 네팔이나 티베트와 같은 약소국이 입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역시 일곱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부처님의 나라 네팔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족(知足)을 상실하면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오는지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처님 전생담에 이를 성찰할 수 있는 동화가 나오는데, 바로 '수반나함사 자타카(Suvaṇṇahaṁsa Jātaka)'다. 수반나는 황금, 함사는 거위나 백조를 의미하므로 황금 거위 전생담이 된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툴라난다(Thullanandā)라는 비구니를 경책하기 위해 설한 내용이다.

당시 한 재가 신자가 비구니들이 수행하는 공동체에 마늘을 보시하고 있었는데, 툴라난다가 마늘밭으로 가서 전부 뽑아간 일이 있었다. 사실을 알게 된 부처님은 비구니의 탐욕을 지적하면서, 전생에도 그녀는 지족(知足)을 몰랐다며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주 오랜 옛날 부처님은 어느 브라만 집안에 태어난 적이 있는데, 세상을 일찍 뜨는 바람에 남겨진 아내와 세 딸은 남의 집 일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부처님은 황금 깃털을 가진 거위로 다시 태어나 전생을 볼 수 있는 신통력을 얻게 된다. 거위는 남겨진 가족이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전생에 너희들 아버지였다. 앞으로 내 몸에서 황금 깃털을 한 개씩 뽑아 안락하게 살거라."

거위가 내준 황금 깃털 덕분에 가족들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세 딸을 불러 말한다.

"얘들아, 축생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단다. 거위가 언제 다른 곳으로 가서 오지 않을 수 있으니, 다음에 거위가 오면 몸의 깃털을 모조리 뽑아버리자꾸나."

이 말을 들은 세 딸은 깜짝 놀라 안 된다며 어머니를 말렸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찌 그처럼 모질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한 개씩만 받아도 우리 가족은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지 않고 거위가 찾아오자, 강제로 붙잡아 깃털을 모두 뽑아버렸다. 그 순간 황금 깃털은 그냥 평범한 흰 깃털로 변했으며, 날개를 뽑힌 거위는 날아갈 수 없었다.

실망한 어머니는 커다란 항아리에 거위를 가두고 깃털이 다시 자라나길 기다렸다. 하지만 새로 자란 깃털은 황금이 아니라 하얀 털이었다. 날개가 자란 거위는 하늘로 날아올랐고

탐욕으로 황금 깃털 전부 잃은 어머니
지속되던 이익을 한순간에 삼킨 과욕
네팔 참사도 인간 욕심이 부른 비극
끝없는 탐욕 지구 생존 위기까지 자초
지족 회복으로 인류 공멸 막아야 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의 탐욕으로 딸들은 평생 얻을 수 있는 황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은 툴라난다가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앞으로 비구니는 마늘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을 제정하고 게송을 읊는다.

"얻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탐욕을 내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억지로 거위를 붙잡아 황금을 잃어버린 것이다."

전생의 탐욕스러운 어머니는 툴라난다이며, 나머지 세 딸은 현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 비구니들이다.

지족(知足)이 멈춘 자리

'황금 거위의 깃털'을 읽은 독자라면, 자연스레 어디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던 이솝우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어느 농부에게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생겼는데, 한꺼번에 많은 황금을 얻으려고 거위의 배를 갈랐다는 이야기다. 어떤 이는 팔리어 자타카가 이솝우화보다 일찍 성립됐다는 점에서, 동서양의 교역로인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와 함께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미 아는 것처럼, 배 속에는 황금알이 들어 있지 않았고 결국 거위만 죽게 돼 농부는 후회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탐욕으로 인해 모두 잃었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다. 필자 역시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소개하고 인간의 탐욕이 불러오는 위험성을 지적한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했다.

"지구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탐욕을 충족시키기에는 몇 개가 있어도 부족하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세차게 불타올랐다. 그 결과 환경 파괴와 화석연료의 고갈, 기후위기와 같은 괴물을 낳고 말았다. 이 동화를 개인의 탐욕을 경계하는 차원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관련해서 성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네팔 참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류 역시 자연이라는 황금 깃털을 잃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는 곧 지구가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동화에서 황금 깃털을 지닌 거위는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 생태계를 상징한다. 그런데 어머니로 비유되는 강대국은 무한 성장이라는 신기루에 눈이 멀어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그 결과 자원 고갈과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자초한 것이다. 동화에서는 지족(知足)을 상실한 어머니의 탐욕으로 죄 없는 세 딸이 업보를 함께 받는데, 현실에서 약소국 네팔이 피해를 당하는 모습과 묘하게 닮아있다.

간디의 말처럼 지구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 등 지속가능한 자원 또한 넘쳐난다. 그럼에도 강대국의 이익이라는 논리에 막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설립된 기후 협약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하고 말았다. 기후위기는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그 결과 네팔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의 눈에는 자국의 이익만 보일 뿐,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어가는 황금 거위를 살릴 수 있을까? 답이 잘 보이지 않는 질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만, 국가 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황금 거위는 죽어가고 네팔과 같은 약자들만 피해를 키워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탐욕이 멈추지 않으면 황금 거위는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지족이 멈춘 자리, 황금 거위가 떠난 자리에는 오직 공멸이라는 비극만 남을 뿐이다.

철학자 스피노자(Baruch Spinoza, 1632~1677)는 '자연이 곧 신'이라는 범신론(汎神論)을 주창했다. 그의 말처럼 자연에 신성(神性)이 깃들어 있다면, 어찌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곧 신성을 모독하고 해치는 중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류는 그동안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신을 함부로 해쳐왔으며, 그 결과 지구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처지가 됐다. 신인 자연을 파괴한 무거운 죄,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언제까지 황금 깃털을 뽑고 거위의 배를 가를 것인지.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어느 크리족(Cree) 인디언이 남겼다는 말을 전하면서 글을 마칠까 한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지고 마지막 강물이 더럽혀지고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너희들은 깨달을 것이다. 돈을 먹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



대행 스님

인간으로서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대인이 돼라

광주의 여러분께서 참으로 신심이 돈독하여 이 지원을 마련하고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집 내 집이 없는 이 집은 여래의 집이니까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누구나가 다 오실 수 있는 집입니다. 아주 작게 생각한다면, 한 식구가 한 집에 들어 있듯이 우리의 개별적인 몸뚱이 하나를 수십억 마리의 한마음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회전을 하면서 살고 있는 혹성이라고 비유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점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안식은 어떠한 경우에 하게 되느냐. 저 부처님 형상이 바로 우리의 형상이라고 봅니다. 저 부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요, 저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니 둘이 아니게 회전, 즉 공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맹종하고 무조건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나의 중심, 중용, 중도로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에 도달해야만이 나 자신을 자신 속에서 발견함으로써 이 세상이 둘이 아니게 공존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둘이 아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나투면서 진화된다는 그 사실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사실은, 한마음 속으로 들면 하나도 없을 것이요, 한마음 속에서 질량이 나오면 헤아릴 수 없이 광대무변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만법을 들이고 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바로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태초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화두요, 화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알아야 된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하여 괴로움이나 고독함, 액난이나 병고가 있다는 것, 모든 것은 자기한테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한번 뒤집어 생각해서 바로 자기한테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림 · 최주현

바깥으로 끄달리는 이 마음은 한계가 있지만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좇아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창조력입니다. 우린 정신력으로써 사대에 다 통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에서 오신통이라고 합니다마는 오신통에 관한 건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똥 마려우면 똥 누고 졸리면 잠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앉아 있고 싶으면 앉아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과학이 따로 없고 진리가 따로 없고 부처님 법이 따로 없고 우리 생활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부처님 법이 다 있는 것이지 나를 떠나서 무슨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죠. '만약에 어디에서 능력이 있어서 나를 장구벌레로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난 그걸 탓 안 하겠다. 내 이 생각이 잘못이라면 부처님이고 뭐고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선 밀고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든 가난치 않든 간에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스스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한생각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릴 수가 있는가 하면 한생각이 구덩이에 빠진 걸 건져 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알아들으실까 봐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움죽거리듯,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되듯 이렇게 삼합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자칫 잘못 끌고 가면 구덩이에 박힙니다. 그래서 그 차는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뚱이도 마음에 따라서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병이 들고 또 가난해지고 망하고 이런 수가 많죠.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홍인 선사께서 육조 스님을 삼경에 말없이 불러서 말 없이 말을 하시면서 금강경을 설하셨는데 그 대답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난 말을 똑같이는 못 합니다만 지금 현실에서 내가 느끼고 체험한 걸로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 우리 자성이, 본래 내 속에 내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림살이 빼놓고 나 빼놓고 뭐가 남는가. 또 "본래자성불은 일체가 둘이 아닌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모두가 고정됨이 없이 공용 공체 공식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대도 그것은 조금도 어김이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둘이 아닌 까닭에 본래자성불이 둘 아니게 나투는 걸 어떻게 알았으리까." 자세히 말을 해 드리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본래자성불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불교다, 불도다 하지만 전부가 둘이 아닙니다. 불(佛)은 바로 불성(佛性)이고, 교(敎)는 말씀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깨달아서 정신력, 즉 누진을 통해서 사대에 통신이 돼야 심안도 밝아지고 타심통도 숙명도 천이도 천안도 다 밝아지고, 오합이 협조해서 모두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면서 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원심력을 얻어서 원통력으로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안팎이 없이 중용을 하실 때 여러분은 대인이면서 부처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가 되고, 즉 모든 것을 쉬고 마음으로 들이면 하나도 없고 또 마음을 냈다 하면 만법이 내지는 거죠. 또 그것을 밝혀서 말한다면, 핵 에너지가 있다면 질량이 바깥으로 나갈 땐 수천수만 가지가 나가고 한군데로 들일 때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듯이 우린 그것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을 한대도, 부부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지는데, 수십억 마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영혼과 더불어 삼위일체로 구성된 한 마리가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수십억 마리는 다 물로 없어지고, 바로 업식이라고 할까요? 식(識), 그 영식만 남아서 한 사람으로 다 몰립니다. 몰려서 그것이 몸속에서 자라면서 회전을 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자라서 지금 어른이 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몸뚱이 속에 있는 그 하나하나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미생물로부터 이날까지 수십억 광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월 동안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해 가면서 인간의 모습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간의 모습까지 가지고 나왔다면 그 인간의 모습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대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정신력으로써 사대에 다 통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 19면에서 계속

다. 즉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인간이 돼라. 너를 알지 못하면 대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멋있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 몸뚱이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도중에 그 인연 된 업식 하나하나가 뭉쳐진 것이고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인과로써 만난 바로 덩어리입니다, 구성된 덩어리. 살림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하나가 그 업식으로 인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질병이 나온다, 가난이 온다, 눈을 어둡게 만든다, 복통이 나게 만든다, 화가 나게 만든다, 고독하게 만든다 이런 것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인과의 업식에 따라서 온 거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주인공에 다 맡겨 놓고 '네놈한테서 나온 거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네놈한테 있다.' 그렇게 믿고 모든 것을 거기다 놓고 간다면,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관하는 것이며 참선이며 좌선이며 그것이 삼매며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좌선을 한다고 가서 몸뚱이를 조아리고 앉았는데, 그게 좌선이 아닙니다. 사람은 좌선을 할 때 하되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마음이 움죽거리지 않고 '일체 만법이 거기서 나고 드는구나.' 하는 거를 알면서 믿고 거기 놨을 때에 바로 좌선인 것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밥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회사 나가서 뛰면서도 그게 좌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몸뚱이를 가만히 앉혀 놓는 것이 좌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하는 사람은, 구루마 끌고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공부 못 하게요? 그럼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어 가는 대로 방편도 바뀌어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용어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람들은 용어를 전부 바꿔서 부르니까요. 엊그저께도 얘기했듯이, 명주를 갖다가 지금 실크라고 한다면 어찌 그걸 무시하겠느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질과학이 고도로 발달이 돼서 아주 그것은 그것대로 무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질과학이기 때문에 물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말려선 안 된다 이겁니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핵도 나왔고 말입니다. 그 핵이 있기 때문에 핵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핵에 의해서 물질을 만들어 놓고도 그 물질 속에 말린다면 어떻게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능가할 수 있는,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도리를 깨치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또는 지금 물질문명이 발달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첨단을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 몸뚱이 속에서 벗어나서 내 한생각이라면 모습 없는 내가 수천수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모습 없는 내가 한군데로 든다면 하나도 없어지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한계가 있는 몸뚱이로만 뛰려고 하니까 너무나 걸리는 게 많아요. 물질이니까 걸릴 수밖에요. 물질 아닌 나 자체의 마음이라면, 한생각이면, 강이 있어서 못 건너갈 일도 없고 산이 높아서 못 넘어갈 일도 없고 뜨거워서 못 건너갈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기 때문입니다, 통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집에 전화를 설치해 놓지 않는다면 남의 집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내 집에 전화가 오지도 않고, 그렇게 두절되듯이 내 마음에 안테나를 세워 놓지 않는데 어찌 딴 데서 통신이 오겠습니까? 우주간 법계에서 다 통신이 돼서 나한테 접근이 되고 내가 아무 일을 안 하면서도 내가 나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일체 생활 속에서나 길을 가다가도 어떤 소릴 들었을 땐 '아!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한번 내면 그게 법이 돼야 됩니다.

말 한 마디 한 생각이 그대로 법이 된다면 우리나라와 모든 국민들을 구제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려면 세계적으로 뛰어야 된다는 마음의 도리가 있습니다. 또 지구라는 한 혹성을 건지고 근면하고 건실하게 끊임없이 원력을 세워서 나가려면, 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아님이 없이, 내 능력 아님이 없이, 내 아픔 아님이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돌아가야만이 그 질량이 그대로 핵이 되고 핵에서 질량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으로부터…, 이런 게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내 주인공, 내면에 모든 것을 보임한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다. 그다음에 깨달았을 때는 깨달았다고 말하지 말라. 갓 태어난 어린애가 어른이 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깨달아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님을, 둘이 아님을 또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또 보임한다.

세 번째도 또 보임한다. 왜? 네가 아니고 내가 아닌 까닭에 서로가 둘이 아니게 나툼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보임해야 된다. 둘이 아니게 나투는 까닭에…, 나투는 건 삼십이응신이 어디고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어디고 보이지 않는 데가 없고 어디고 통신 안 되는 데가 없고, 가고 옴이 없이 어디 안 가는 데가 없고 내 몸 아님이 없으니, 부처님은 없는 게 부처님이지 부처님이 있는 것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평발이라는 그 뜻도 어디 아니 닿는 데가 없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한 것입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잘 파악해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걸 생각하고 구상해서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그러하니까 그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광주의 여러 신도님들이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몸뚱이는 허망하다 하더라도 허망한 걸 놓고 보면 이것도 허망하지가 않고 실체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할 뿐이지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그걸 비교하자면 얼음이 물이 됐다가 물이 얼음이 됐다가 하는 그 작용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얼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작용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허망하다는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오늘 저녁에 갈 텐데도 저녁 나절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요. 오늘 저녁에 갈 사람이 왜 사과나무를 심었느냐? 내일 또 내가 먹기 위해서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했죠. 천도를 시켜 달라고 어느 스님한테 말을 하니까 그 스님이 한마디 하기를 "에휴! 살았다고 생각을 안 했다면 죽었다고도 생각을 안 할 텐데…." 했답니다. 이게 천도예요.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났는데 그분은 정말이지 그 몸뚱이를 벗었답니다.

더 묘한 법은 우리가 만약에 인간으로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때,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을 발견하지 못해서 윤회에 끄달리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이 몸뚱이가 또 바뀌어져서 돼지의 몸을 가지고 나올는지 소의 몸을 가지고 나올는지 몰라요. 장담 못 합니다. 소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구요.

그러니 여기에 따라서 또 한 말씀 해 드릴 것은, 우리네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몸을 가지고 나올 때 사람의 몸으로 수없이 거듭거듭 태어난다 하더라도 선지식 하나 만나기가, 정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방편으로 말로 하려니까 정법이라고 그랬지 정법이라 하면 벌써 정법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모습을 떠나서 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거나 그런다면, 소의 모습으로 태어났던 그 관습이라든가 습성이 그대로 남아 가지고 그 모습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소로 태어나는 거죠. 또 돼지로 태어난다거나 뱀으로 태어난다거나 이런다면 그 모습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오백 년이 되느냐 천 년이 되느냐 만 년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한테 자세히 얘기해 드리는 것인데 남의 말을 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거기에서 죽었다 하면 벌써 그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그 엄마 아버지도 뱀의 엄마 뱀의 아버지, 돼지의 엄마 돼지의 아버지한테 응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 그 모습에서 떠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몸 받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사람의 몸을 받아 가지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은 전부 부처님들인데, 부처님 아님이 없는데 한생각에 그만 부처님의 도리를 상실하기도 하고, 또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한생각을 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태산준령을 넘을 수도 있고 뚫을 수는 있을지언정 (가슴을 짚으시며) 내 백지장 하나를 뚫지 못하고 넘지 못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하는 말인지 모르지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 여러분은, 여기에서 옛날부터 지내 내려온 걸 봤을 때 아주 똑똑한 분들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좀 더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거름으로 삼고 바탕으로 삼아서, 우리는 노예가 돼서도 아니 되고 남이 하니까 무조건 해서도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나의 마음을 따르고 나의 육신을 따르되 믿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공존하고 있는 한마음 주인공을 믿으세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것이 둘이 아닌 까닭에 주인공이라고 했거늘 주인공을 떠나서, 자기를 떠나서 어찌 부처님 법을 익히랴.' 이런 게 있습니다. 참 묘한 도리가 있습니다.(중략)

그러니 광주 여러분이 이렇게 애를 쓰고 하나하나 해 놓으셨으니 여러분은 이 자리를, 일체 삼천대천세계의 도량을 이 도량 하나로 쳐도 됩니다. 또 여러분의 몸이 그대로 도량이요, 그 도량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10월 30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진심으로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물러서지 않는
> 그 마음에 도달해야만이
> 나 자신을 자신 속에서 발견함으로써
> 이 세상이 둘이 아니게 공존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⑲ 참전 트라우마와 이면의 용서에 대한 갈망

전쟁의 아픔 딛고 자식 앞에 서는 참된 용기

반세기 동안 멈추지 않은 전쟁과 기억

상담실을 찾아오신 김상담 어르신(남·80세)은 마스크로 얼굴을 꼼꼼히 가리고 들어왔습니다. 꼿꼿한 허리에 빠른 걸음걸이와는 달리, 작은 목소리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삶은 20대 청년 시절에 멈춰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어르신은 아무런 원한도 없는 사람들에게 총을 겨눠야 했던 그곳에서, 피투성이 전투복을 입은 채 날마다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었습니다.

전방에서 벗어나 후방으로 물러난 뒤에도 허공에 총을 쏘아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공포에 시달렸지만, 군 복무를 연장했던 과거의 선택은 반평생 가슴을 짓누르는 깊은 후회가 됐습니다.

전역 후 반세기가 흘렀음에도 전쟁의 악령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쫓기는 악몽에 시달렸고, 윗집의 쿵쾅거리는 소리나 거리 트럭의 확성기 소리만 들어도 "전쟁이 났으니 피하라"는 신호로 들려 심장이 멎을 듯 놀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는 어르신의 일상을 완전히 갉아먹었습니다.

자녀 울음소리가 비명으로, 무너진 가정

전쟁터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돌아왔지만, 정작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은 또 다른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소개로 만난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이미 부서진 어르신의 내면은 평범한 가장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어르신의 귀에는 전쟁터에서 죽어가던 이들의 처절한 비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빠져든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어린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간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두려움에 결국 집을 뛰쳐나왔고, 그렇게 시작된 가족들과의 이별은 어느새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홀로 고통을 견디며 지내온 세월 끝에 아내와 이혼했고, 이후 쓰러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애도는 사찰에 영가등을 달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어버린 자녀들을 떠올릴 때마다, 어르신은 자책감과 외로움에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소송이란 방어막 뒤의 절박한 진심

어르신은 국가를 상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도 상담보다는 오직 참전 당시의 무용담과 국가를 향한 원망, 그리고 소송 이야기만을 쳇바퀴 돌듯 되풀이했습니다.

참전 트라우마와 가족 해체 아픔 수용
자녀에게 용서받고 싶은 진심을 직면
마음속 전쟁 멈추고 평온한 여생 도와

그러나 어르신의 그러한 고집스러운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짜 욕구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전쟁 참전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자식들을 그동안 힘들게 했던 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전쟁의 후유증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삶에는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속에서도 10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근력운동을 해왔고, 지역 복지시설을 다니며 골고루 식사를 챙기는 등 철저히 자기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단전호흡으로 내면을 다스리는 훈련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소송에서의 승소를 통해 자녀들과 화해를 하고자 했으나, 자녀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의 풍파를 겪어낸 아버지가 진심으로 전하는 미안함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속 전쟁의 칼날을 거둘 때

어르신은 자신이 지은 과거의 허물과 폭력에 대해, 소송에서의 승소라는 명분이 있어야만 자식 앞에 설 수 있다고 믿으며 마음의 전쟁터를 달려왔습니다.

초기불교의 대표 경전인 〈맛지마 니까야〉의 '앙굴리말라 경'에는 살인귀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만나는 순간이 전해집니다. 피 묻은 칼을 쥐고 쫓아오며 "멈추어라, 수행자여!"라고 소리치는 앙굴리말라에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걸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이미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폭력을 내려놓고 멈추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번뇌와 살육의 칼날을 쥔 채 멈추지 못하고 달리고 있구나."

부처님의 이 말씀에 앙굴리말라는 비로소 손에서 피 묻은 칼을 던져버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역시 20대의 전쟁터에서 시작된 마음의 달리기를 노년이 된 지금까지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잔혹한 기억과 자식들에게 남긴 상처는 되돌릴 수 없지만 "내가 참 미안했다"고 진심을 건넬 수 있는 참회의 용기야말로 마음속 전쟁을 끝내는 가장 거룩한 마침표입니다. 어르신이 오랜 세월 홀로 짊어져 온 전쟁의 흉터를 가만히 내려놓고, 여생을 평온하게 가꾸어 나가기를 두 손 모아 응원합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㊸ '잠이 보약'…그 약은 어디서 파나요?

불면의 밤, 약보다 마음 챙겨야

"약사님, 잠 잘 오는 약 하나 주세요."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잠이 안 와. 수면제 처방받아 먹었는데, 약국 약으로 바꿔보려고."

"아, 수면유도제 말씀이세요? 그것도 계속 드시는 건 권하지 않는데요."

"아니, 그냥 잠 좀 자겠다는데 뭐가 이렇게 까탈스러워?"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그 보약을 줘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은 유난히 길다. 분명 몸은 피곤한데 막상 누우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진다. 내일 출근하려면 지금이라도 자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초조해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잠은 더 멀어진다.

그렇게 며칠 밤을 설치다 보면 결국 약의 도움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막상 약을 알아보면 수면제와 수면유도제도 있고, 요즘에는 멜라토닌이라는 것도 있다. 이름만 들어서는 모두 잠이 오게 만드는 약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먼저 수면제부터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수면제라고 하면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을 떠올린다. 이 약들은 뇌의 신경 활동을 억제해 잠이 들도록 도와준다. 쉽게 말하자면 지나치게 깨어 있는 뇌의 활동을 가라앉혀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이다.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부작용이다. 약물의 종류와 복용 기간에 따라 내성이나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고, 기억력 저하나 어지러움, 낙상 등의 위험도 있다. 특히 졸피뎀 같은 약은 드물게 잠을 자는 도중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등의 이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뉴스에서 수면제를 먹고 이상한 행동을 한 유명인의 소식을 접해 본 적이 있을 텐데 대부분 이 약물의 부작용이다.

그렇다고 수면제가 무조건 위험한 약이라는 뜻은 아니다. 불면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이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면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약 자체보다는 잘못된 사용과 장기간의 의존이다.

그렇다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면유도제는 어떨까? 많은 사람이 수면제보다 수면유도제가 순하고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한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으니 아무래도 가볍게 생각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수면유도제는 수면제를 약하게 만든 약이 아니다. 애초에 작용하는 원리가 다르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수면유도제는 독시라민이나 디펜히드라민 같은 성분을 사용한다. 이 성분들은 원래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계열의 약물이다. 코감기약이나 피부약을 먹고 졸음이 쏟아졌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졸음을 일으키는 작용을 이용한 것이 수면유도제다. 이런 성분들은 뇌로 들어가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데, 그 결과 졸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수면제 잘못된 사용과 장기간 의존 주의
약국 수면유도제 반복 복용 시 효과 줄어
저절로 잠들기 위해 몸과 마음에 여유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졸리게 만드는 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잠을 자게 만드는 약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면유도제는 사람에 따라 다음 날까지 졸음이나 멍한 느낌이 남을 수 있고, 입마름이나 변비,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어지러움이나 넘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반복 복용하면 졸음 유발 효과가 줄어들기도 한다.

따라서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면유도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수면제보다 중독 위험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더 안전한 약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잠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반드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론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하고 있다면, 약으로 애쓰기보다 무엇이 잠을 방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수면제가 아니라, 잠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마음과 몸에 조금의 여유를 만들어 주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불교 경전에는 잠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등장한다. 어느 추운 겨울날, 부처님은 숲속의 거친 땅바닥에 얇은 나뭇잎을 깔고 잠을 청하셨다. 이를 본 하타카라는 청년이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지난밤에는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렇다. 나는 아주 편안히 잠들었다." 청년은 의아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바닥은 울퉁불퉁한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자 부처님은 아무리 좋은 침대와 따뜻한 이불을 갖추었더라도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마음이 편안할 수 없다고 하셨다. 반면 자신은 그러한 번뇌에서 벗어났기에 거친 땅바닥에서도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다면, 잠을 억지로 불러들이려고 애쓰기보다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생각부터 잠시 내려놓아 보는 것은 어떨까. 어쩌면 우리가 잠들기 위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반드시 잠들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인지도 모르겠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일일시호일

생후 39일 만에 심장 수술 받은 베트남 아기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대동맥 축착 앓는 칸비 양, 수술 후 치료 계속
엄마는 병원서 간병, 아빠는 홀로 생계 책임

병원비 1억 원 넘어…미납액 약 9000만 원
어린 생명 건강하게 자라도록 불자들 자비 절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우리 복지관은 지금 20.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삶이 한 편의 시로



시울림 문학동아리 회원들이 '울림이 시가 되다' 낭송발표회에서 자신이 쓴 시를 직접 낭송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몇 초 만에 글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정보가 빠르게 오가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 편의 시를 써 내려간 어르신들이 있다. 시인이나 수필가를 꿈꾸는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 살아온 경험과 마음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 시집 '울림이 시가 되다'를 펴냈다.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은 시울림 문학동아리 창단 3주년을 맞아 회원 9명의 삶이 담긴 창작시를 모아 시집을 발간했다. 이번 시집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쓰고자 한 어르신들의 노력과 문학을 향한 꿈, 새로운 도전을 이어온 시간이 담겼다.

어르신들이 시의 재료로 삼은 것은 특별한 사건이나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자신이 살아온 삶이다. 익숙한 기억도 글로 옮기려면 다시 들여다봐야 하고,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은 감정도 한 문장으로 표현하려면 정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난날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만들어냈다.

'울림이 시가 되다'라는 제목처럼 마음속에 머물던 감정은 시가 되고, 시는 다른 이에게 닿아 또 다른 마음의 울림을 만든다. 각자의 삶에서 길어 올린 이야기는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도 시에 담긴 감정을 통해 자신의 삶과 닮은 순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아픔에 위로를 보내고, 소박한 기쁨에서는 잊고 있던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다.

속도와 편리함을 앞세우는 정보화 시대에 자신의 기억을 꺼내고 마음을 헤아리며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살아온 시간을 대신 써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어르신들은 자신이 보는 세상을 기록하며 다른 사람들과 삶을 함께 나누며 마음을 나눴다.

시울림 문학동아리 회원들은 시집 발간에 이어 작품을 독자에게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지난 9월 출판 기념 및 낭송발표회를 직접 기획했으며, 행사 진행까지 맡아 시집 발간의 기쁨을 나눴다. 낭송발표회에서는 자신의 시를 목소리에 실어 전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감정과 호흡은 또 다른 여운을 남겼다. 실제 시를 쓴 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석자들은 글에 담긴 경험과 감정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어르신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들려주는 자리였고, 참석자들에게는 한 편의 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전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서툴더라도 직접 쓴 시를 진솔하게 낭송하는 과정은 글을 쓰는 것과는 또 다른 도전이다. 회원들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목소리로 전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어르신들이 지나온 시간을 시로 기록하고 이를 함께 읽고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활동은 개인의 창작을 넘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됐다.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이야기를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유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일자리지원팀 주임

대만불교 포교일기 ⑩ 법륜(法輪)보다 앞선 식륜(食輪)

보살심 담긴 음식도 포교의 한 축

중국불교에는 '법륜미전 식륜선전(法輪未轉, 食輪先轉)'이라는 말이 있다. '법륜을 굴리기 전에, 밥의 바퀴가 먼저 돌아야 한다'는 뜻이다. 주린 배를 채워주지 않고서는 아무리 고귀한 진리를 설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무시할 수 없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포교와 수행의 첫걸음은 타인의 배고픔을 살피는 자비심에서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필자가 몸담고 수행했던 대만에 가보면, 이 '식륜(食輪)'이 얼마나 다채롭고 일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금세 깨닫게 된다. 대만은 그야말로 '채식[素食, 소식]의 천국'이다. 길거리 곳곳에 채식 전문 식당이 널려 있고, 편의점의 도시락부터 야시장의 간식까지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가 세심하게 구비돼 있다.

흥미로운 점은 대만 사람들에게 채식은 불교 신자들만이 지켜야 하는 엄격하고 맹목적인 종교적 금욕이 아니다.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하루에 한 끼라도 고기를 멀리해 내 몸을 맑게 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공덕을 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최근엔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까지 더해져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이자 문화로 자리 잡았다.

불광산의 창건주 성운 큰스님께서는 "채식은 내 마음의 자비심을 기르기 위함이지, 형식에 얽매여 남을 불편하게 해선 안 된다"며 상당히 유연한 마음을 강조하셨다. 만약 육식을 하는 지인들과 합석하게 되더라도 별스럽게 티를 내기보다는, 고기 옆에 있는 채소를 감사히 먹으면 된다고 가르치셨다. 불타기념관 개관 초기, 채식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객들이 식사를 거른 채 사찰을 떠나는 모습을 보시고는 '도량 안에 육식을 할 수 있는 식당이라도 열어야 하나' 고민하셨을 정도로 그 배려가 깊고 유연하셨다.

대만서 생명 존중 문화로 정착된 채식
불광산사도 적수방서 채식 체험 재개
발우공양 정신, 먹는 선·치유 대안으로

음식으로 대중과 소통했던 불광산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바로 '적수방(滴水坊)'이다. 불광산 본사를 비롯한 전 세계 분원에는 적수방이라는 이름의 작은 채식 식당이 있다. 이는 '한 방울의 은혜라도 훗날 솟구치는 샘물로 보답한다(滴水之恩, 湧泉相報)'는 큰스님의 보은 정신이 담긴 곳이다. 도량을 찾아온 이들에게 값싸고 정갈한 채식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하며, 그 따뜻한 국물 속에 부처님의 법과 위로를 녹여내셨다. 음식 한 그릇이 곧 훌륭한 법문이자 전법의 방편이 된 것이다. 서울 불광산사도 적수방을 운영했으나 성북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운영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 하지만 적수방은 대중을 향한 작은 보은의 실천이기에, 최근 일요일마다 예약제로 불광산의 채식을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도량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반갑게도 최근에는 한국의 사찰음식 역시 전 세계적인 찬사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조리법과 재료를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의 정신은 그 자체로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완벽한 '먹는 선(禪)'이자 치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만의 대중적인 채식 문화와 한국 사찰음식은 맛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 밑바탕에는 뭇 생명을 어여삐 여기는 보살의 마음이 흐르고 있다. 음식도 법륜 못지않은 중요한 포교의 한 축이다. 식륜과 법륜이 같이 돌 때 수레의 두 바퀴가 온전히 굴러가듯,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도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㊳ 말의 품격, 공간의 표정

전등사를 간 때는 꽃살문을 찾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이었다. 기본적인 사찰 예절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래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어떻게든 사진은 찍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웬걸, 뜻대로 되지 않았다. 광선 조건은 물론이고, 무시로 오가는 사람들을 비롯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돌잡이' 아이에게 멋진 포즈를 요구하는 것처럼.

전등사 도량을 어슬렁거리는데, 눈에 띄는 '그림'이 들어왔다. 제주도 민가에서 대문 대신 걸쳐 둔 것 같은 모양의 긴 통나무였다. 사진에 담기 좋은 모습으로 바꾸려고 낑낑대는데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다. 그때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불쏘시개로도 못 쓸 걸 무얼 하시려고 그렇게 힘을 쓰십니까" 하며 다가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 주셨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던 걸음을 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절이라는 공간'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섰다는 느낌을 받았다. 만약 내가 여염의 사유지에서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남의 땅에서 뭐 하는 짓이냐" 하는 험한 소리 듣기 십상이었을 것이다. 말의 품격은 공간의 표정이 된다.

한참 뒤 스님이 지나간 방향으로 가 보았다. 정족산사고지가 나왔다. 1999년에 복원된 '장사각'과 '선원보각'이 그곳에 있었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보존된)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 '족보' 등을 보관했던 곳이다. '억불'의 조선왕조가 자신의 정체성을 '전등사'에 위탁했던 역사의 현장이다.

손영자 작가



전등사 선원보각.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오늘을 읽고 나를 깨우는 지혜
AI부터 마음공부까지 지금 여기, BTN에서 만나다
마하반야 AI
AI가 묻고, 반야가 답하다
방송시간 (월) 08:30, 16:00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
복잡한 세상, 답은 내 안에
방송시간 (수) 13:00, 23:15
시대의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 시너智
오늘을 읽는 지혜
방송시간 (수) 12:00, 22:30
진흙에서 피어난 연꽃 처염상정(處染常淨)
흔들려도, 당신의 꽃은 핀다
방송시간 (목) 12:00, 22:3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소임의 교체, 경험의 계승

현불논단



설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의원이 선출되면서 여러 매체를 통해 제18대 중앙종회 활동을 정리한 글들을 접하게 된다.

18대 종회의원 가운데는 다시 종회에 진출한 스님도 있고, 활동을 마무리한 스님도 있다. 종책모임을 이끌고, 종단 운영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며, 각종 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한 스님들까지 많은 이들이 4년간 종단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기사나 글에서 이들의 개별적인 활동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한 사람이 소임을 맡기까지는 여러 인연과 과정이 필요하다. 소임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책임과 어려움도 감당해야 한다. 종단과 사찰을 위해 시간과 원력을 쏟았기에 그간의 노고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계승하려는 마음도 필요하다.

18대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몇 해 전 '역대 비구니 종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선배 종회의원 스님들이 종회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후배들에게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훈훈하면서도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종회 활동을 마친 뒤 자신의 경험과 소회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종무행정 담당 전문성, 종단의 큰 자산
소임 종료 후에도 경험·원력 연계 필요
신구 역량의 조화가 종단 발전 이끌어

적게는 4년, 길게는 20년 동안 종회 활동을 하며 겪은 크고 작은 일들,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시행착오, 종단을 바라보며 쌓아온 생각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경험과 당부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종회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됐다.

종단의 중요한 자산은 제도와 조직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활동해 온 사람들이다. 종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종헌·종법과 종단 운영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경험, 사찰을 운영하며 대중과 신도를 살피고 도량을 관리해 온 경험, 여러 종무행정을 담당하며 쌓은 전문성은 다음 소임자가 이어받아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원력은 소임을 마치고 다른 역할을 할 때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소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면 이는 개인과 종단 모두에 큰 손실이다. 소임을 마친 뒤에도 경험과 원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그 역량을 종단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종단 발전은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인재의 역량과 기존 구성원이 축적한 경험이 조화를 이루고, 소임 교체 과정에서 불필요한 단절과 소외를 줄여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자신의 역할을 마친 뒤에도 그동안의 노력이 존중받고 공동체에 쓰인다는 믿음이 있을 때 구성원들은 종단에 대한 신뢰와 애종심을 이어갈 수 있다.

최근 제37대 집행부의 성과를 기록한 책자 말미에 수록된 소임자 명단을 살펴봤다. 종단의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 애써온 수많은 스님과 종무원들의 노고가 떠올랐다. 종단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정성, 원력이 쌓여왔는지 새삼 실감했다. 그분들의 노고와 원력에 존중과 찬탄의 마음을 보낸다.

AI가 답하는 시대, 언론인의 존재 이유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인공지능(AI)이 뉴스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시대다. 취재 자료 분석과 기사 요약은 물론, 영상과 음성 제작까지 신속히 처리하면서 뉴스 생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AI가 뉴스를 대신 생산하는 시대라면, 언론인은 무엇을 해야 하며 그 존재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해외 언론 현장은 이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미국 AP통신은 기사 요약과 번역에 AI를 활용하면서도 기자의 검증 책임을 강조한다. 뉴욕타임스는 취재 지원과 편집 보조에 AI를 도입하되 인간의 최종 편집 판단을 유지하며, 영국 BBC 역시 AI 기반 기사 요약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면서 기자가 결과물을 검토·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인 역할의 근본적 재정립을 요구한다. AI가 정보의 수집과 가공에 관여할수록 언론인은 사실의 검증자이자 맥락의 해석자, 나아가 최종 판단과 책임의 주체가 돼야 한다. 저널리즘의 진가는 사회적 의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권력이 은폐하려는 진실을 추적하며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공론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 시점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다. AI가 내놓는 그럴듯한 분석과 정제

AI시대 언론인은 판단과 책임의 주체여야
과도한 AI 의존 경계, 활용 기준 마련 필요
진실 추구·결과 책임 본 역할에 집중할 때

된 답변에 익숙해질수록, 기자는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기 쉽다. AI가 제공한 정보의 테두리 안에서만 취재 방향을 설정하거나, 현장의 복잡성을 단순화한 결론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기술에 업무를 맡기는 것과 판단의 주도권까지 넘겨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단기적인 생산성 향상에만 몰두한다면 저널리즘은 효율성을 얻는 대신 신뢰라는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AI 활용 기준과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언론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에 대한 조직적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언론인 스스로 자신의 판단과 태도를 돌아보는 일이다. 거대한 기술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부처님의 자등명(自燈明)·법등명(法燈明)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되는 이유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이다. 대행 선사 역시 밖으로 끄달리지 않고 자기 근본을 믿으며 안으로 돌이켜 살피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러한 가르침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한다. 기술이 제시하는 매끄러운 답에 익숙해질수록, 언론인은 자신의 판단이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AI가 언론 현장에 깊숙이 자리 잡을수록 언론인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토대는 저널리즘의 원칙에 충실한 자세여야 한다. AI는 취재와 보도를 돕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진실을 추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언론인의 본질적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결국 AI시대의 언론 논의는 '기술을 얼마나 도입할 것인가'를 넘어 '언론인은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AI에게 묻기 전에, 언론인은 얼마나 스스로 묻고 있는가.

社 說

팔만대장경 판각, 인류 평화의 원력으로

800여 년 전 고려의 선조들은 몽골 침략이라는 국난 속에서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염원하며 팔만대장경을 새겼다.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에 걸쳐 완성한 대장경에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서원이 담겼다.

그로부터 800여 년이 흐른 지금, 법보종찰 해인사가 새로운 대장경 판각 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선조들의 호국 원력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계승하고 인류의 평화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뜻에서다.

이번 불사는 현존하는 팔만대장경을 복제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전통 판각 기술을 계승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는 과정에 깃든 수행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데서 나아가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자비를 오늘의 삶 속에서 되살리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해인사 대장경 판각 불사 첫걸음
'시대의 서원' 담아 원만 회향되길

팔만대장경의 가치는 방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목판에 새겼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전쟁의 고통을 평화의 서원으로 바꾸려 했던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계승해야 할 핵심이다.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전쟁과 핵 위협,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오늘날 대장경 판각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판각 불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누리에 전하는 '시대의 서원'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장경의 가르침이 전통 판각과 디지털 기술, 다국어 콘텐츠를 통해 세계인에게 전해진다면 그 가치는 더욱 확장될 수 있다.

해인사는 장경도감을 설립하고 판각학교를 열어 전통 판각 기술의 전승을 이끌고 있다. 경판 재료인 산벚나무 약 300톤을 확보하고, 미래의 목재 수급을 위해 돌배나무 2000그루를 심는 등 장기적인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각 교육과 경판 제작을 위한 '대장경 타운 조성'도 계획 중이다.

이 같은 불사가 실현되면 전통 판각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전문 각수를 양성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아카이브 구축과 국내외 학술 교류를 통해 대장경의 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해인사가 이번 불사를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여정으로 추진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갖추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이번에 입재한 만일기도는 이러한 실천의 원력을 모으는 수행이다. 하루하루의 정진이 쌓여 완성되는 기도로, 불사의 원만한 성취를 기원하며 지혜와 자비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신행이 될 것이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팔만대장경은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인 동시에 후대가 책임지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 가치는 원형을 보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경판에 담긴 지혜와 자비를 오늘의 언어로 해석하고 미래세대에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해인사의 새로운 판각 불사가 원만히 성취돼 그 공덕이 법계의 모든 생명에 두루 회향되기를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11월 4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11월 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11월 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拂子

특별 판매

대종사와
큰스님께
공양올립니다

下心으로 예를 올리는 자리
수행의 기품을 완성합니다

청정수행의 표상이신
대덕 큰스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불자(拂子)는?

큰스님들께서 설법 또는 수행시 사용하는 법구(法具)로
마음속의 번뇌와 잡념을 털어내는 대표적인 법구입니다.



- 주문제작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종단 문양과 법명이 각인됩니다
- 불구(佛具)별 고급케이스로 포장됩니다
- 직접 전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종류 : 야크꼬리 또는 말총

마하몰! 010-8825-4367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